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코로나19를 막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공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공로에 따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오심으로 역사세계에 광명이 찾아왔고 생명의 소망이 있고 평화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생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여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3호 2012년 12월 8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시진핑 시대 출범...중국교회에 도움

習近平
오픈도어뉴스, '중국 새 지도부 합리적 정치개혁 주도로 기독교 가치관과 교감' 전망

중국의 향후 5-10년 국정운영을 책임질 5세대 시진핑 지도부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출범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에 걸쳐 많은 비전을 제시했으며 서방 세계는 새 지도부 하에서도 거대 중국이 큰 동요 없이 조화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이 이끄는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향후 중국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중국은 진정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해 촉박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반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세계 최강국으로의 도약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영구집권을 꾀하는 중국공산당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럼 높고 많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부정부패 등 심각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외부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국과의 갈등, 서방국가와의 무역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먼저 주요 키워드로 짚어본다. 이에 따라 오픈도어뉴스(Open Door News)는 중국 권력 변화가 8천만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있다(What China's Seven New Rulers Mean for Its 80 Million Christians).

이번 18차 중국 공산당대회 기간에 인터넷 최대 화두는 단연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후진타오 주석도 업무보고에서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당과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 정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18차 당 대회 보고서에서도 서방정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듯 중국 내 급진적인 정치개혁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정치 개혁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 당내 점진적 민주화 추진, 지방정부 항급 단위에서의 직접선거 확대와 더불어 부패 방지조치 강화와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등 당내 감독체제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사법백서를 발표해 법원과 검찰원의 독립을 강조하고 사법부를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정범위 서기를 상무위원직에서 제외시켜 권한을 약화시키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



세계 기독교회는 시진핑 시대를 맞은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또 당내 부패를 감독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내 서열을 7위에서 6위로 격상시키고 위기 해결전문가이자 개혁적 성향의 왕치산(王岐山)을 임명한 것도 향후 당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기존의 고속 성장위주의 경제방식이 한계에 부딪

히며 성장률이 7%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의 위험에 맞닥뜨렸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 중국을 진정한 세계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5세대 지도부가 짚어진 과제다.

중국은 또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동안 중국대형 국유기업들의 독점과 부패

가 비효율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핵심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 만큼 개혁 작업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반면 계층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폭등을 야기하는 수준인 0.4를 넘어 이미 0.55에 달했다. 경제 규모는 늘어났지만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거꾸로 가는 '국부민궁(國富民窮)'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 내부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중산층 사회인 이른바 '샤오강 사회'(小康社會)건설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를 키워왔지만 문화산업은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오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사 64:9)

일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 972-2-6599999 Fax: 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 (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 (세미나 등록, 성지순례,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 (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으로 현지 공항에서 영접하여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 (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 917-0022, CA: (562) 403-2277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 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 (718) 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 (323) 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 (schgil@hanmail.net)
(재) 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 583-9136~8 / Fax 588-0709
- * 미자립교회 목회자님을 위한 '성지순례 등록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면

50년후 기독교, 교단보다 탁월한 설교자중심으로



3면

10/40원도우, 기독교 박해 증가



7면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2) 노봉린 박사 (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16면

인터뷰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담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3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퀵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3년 1월 2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3년 1월 2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3년 1월 28일(월) - 3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미얀마 방문 소고



원종훈 목사 (사카고 그레이스교회)

G2 시대의 파트너를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 방문지답게, 11월의 미얀마는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방인을 맞아 들일 준비조차 되지 않은 곳곳의 어두움이 제법 짙게 다가왔으며, 생활 불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의식 저변에 드리운 묵직한 말로 허용하기 어려웠다.

먼 곳에 있지만, 결코 쉽게 내어줄 수 없는 나라이기에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선교적 관심을 표해보고자 한다.

첫째, 격변하는 시대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야 한다. 다른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의식까지 못할 때 먼저 가서 수고한 분들이 있다. 그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그 땅의 각종 어두움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깊게,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곳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수고한 분들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우리가 자랑해주어야 한다. 나라개방 전에 먼저 들어와 복음의 개방을 기다리며 애쓴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둘째, 다른 종교의 선교정책을 주시해야 한다. 그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현대식건물이 있어 물어보니 외국 무슬림 자본이 세운 선교적 학교였다. 미얀마를 향한 이슬람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실감하였다. 또한 개방 후에도 미얀마가 불교국가로 유지되기 위하여, 불교계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 기회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기회일 것이다. 그들의 선교전략을 주시해야 우리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방과 산업화에 따르는 정신적 빈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말은 느껴본 사람들은 안다. 잘 살게 되면서 각박해졌다는 말도 겪어본 사람은 안다. 미얀마는 가난을 대 이어 살았지만, 그나마 불교가 정신적 빈곤을 없애는데 기여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거리에서 만난 현지인의 불교관은 이미 기복적으로 기울었으며,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다. 순진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와 정신적 빈곤을 맞바꾸지 않도록, 삶의 폭 만큼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선교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

넷째, 어느 때보다 선교사들의 하나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짧은 현지방문이지만, 선교의 다양한 접근 이상으로 선교사들이나 현지 교회지도자들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양곤에 200여개가 넘는다는 신학대학이 있고, 현지 교회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종족간의 갈등이 상존하며, 나아가 선교사들이 서로 다른 최우선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개인에게 좋은 기회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되는 좋은 기회이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얀마 선교 200주년이 되었다. 그곳을 찾은 첫 선교사와 첫 신자요 첫 목회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존귀하게 회자되고 있다. 우리 조국보다 선교역사가 긴 미얀마에 정치적 불만이 아니라 신앙의 불이 오기를 기대하며, 그 땅을 위해 삶을 드린 한인선교사들의 이름이 하늘과 땅에서 존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50년후 기독교, 교단보다 탁월한 설교자중심

CT, 남성사역전문가 데이빗 뮌로, 유명설교자 운영 위성교회 등장 예측

기독교는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기독교가 20세기 들어 거대한 변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기독교가 당연하고 있는 큰 어려움은, 한 때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로 당연히 인정받던 것들에 대해 그 신뢰가 광범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서구가 이룩해 놓은 여러 제도들에 호의를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 교회에도 반영돼 서구 교회는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회의적이다.

남성들을 위한 사역과 교회에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로 개발, 제시하고 있는 데이빗 뮌로(D. Murrow) 목사는 현재 경향대로 미국 교회가 움직인다면 2062년에는 교단보다는 교인이나 지역사회의 필요에 보다 더 부응하는 목회자, 즉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을 지닌 설교자 중심으로 지축이 변경될 것이라고 바라본다(The Church in 2062: A Dream Come True or Nightmare?)

미래 교회는 교리적 강조보다는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 뮌로 목사는 앞으로 50년이 지난 2062년 교회의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줬다:

■중형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지역사회 거리마다 있어왔던 교회공동체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올 때부터 시작된 미국 사회의 전통이다. 그러나 50명에서 500

명 대형교회에 속한 위성교회들이 들어서, 파송한 대형교회 담임목회자의 설교와 예배,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역에서 사역하게 된다. 따라서 2062년이 되면 미국 교인들 중 80%가 위성교회에 앉아서 다른 도시에서 사는 본 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다.

■교단대신 교인들의 중심이 될 유명 목회자들이 200여명 정도 된



재정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비중은 교회 건축이다. 그러나 위성교회나 최소형교회가 들어선다면 건축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선교비나 선교 사역으로 사용된다. 4. 전문화: 설교자는 한 번의 설교로 모든 회중의 영적 성장을 도모

주어지게 된다. ▲위성교회들은 처음에는 임대료를 통해 운영된다. 남성들이 여기에 주도권을 가진다. ▲모 교회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설교에 대부분 만족을 느

위성교회 최소형교회만 존재·평신도사역자 소그룹 증가

혜택 : 일관성·효율성·선교사역으로 재정유도·전문화

명 정도의 회중을 사역하기에는 목회자들의 사례가 상향되고, 회중간의 세대 차이가 너무 벌어져, 효과적인 사역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가정교회들의 교인들 역시 탁월한 설교자, 예배, 프로그램들을 가진 대형교회들로 수평 이동을 한다.

■위성교회들과 최소형교회의 성장은 증가한다

대형교회의 교세는 이제 한 커뮤니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위성교회들이 속속 실제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여러 도시로 확장된다. 많은 수천 명에서 작게는 50명 정도를 사역할 수 있는 최소형교회(micro-church)로, 전일 사역자 없이 평신도 리더십을 통해 운영된다. 최소형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닌, 대형교회에 소속된 형태로 가정이나 임대를 통해 기존의 가정교회 모델을 대신할 것이다.

■대형교회 교회당, 교육관 신축이나 개축이 멈춘다 침례교회가 거리마다 있는 것처

다

2062년 미국 기독교의 중심축이 될 대중적 인기를 가진 목회자들에게는 3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즉 1)하나님의 영 2)놀라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3)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미국 교회에 가져다 줄 수 있다:

1. 일관성: 뉴욕에서 캔사스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 중에 있더라도 본 교회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2. 효율성: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는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가령, 잘스 스피치전이나 무디 목사가 동시에 1,000개의 도시들에 설교를 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벽돌과 목재로 된 예배 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3. 선교 사역으로 재정 유도: 교회

할 수 없다. 그러나 2062년에는 영적 성장이나 소명에 대해서 모든 회중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설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2062년 교회에는 새로운 변화에 걸 맞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을 위한 사역의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모든 최소형교회에는 평신도 지도자가 요구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남성들로 부부 단위로 사역하게 된다.

▲예배는 모 교회를 통해 드리지만 책임은 사역자대신 평신도에게

준다.

▲소그룹 사역이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사역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예배가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되다 보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관계가 그림기 때문이다.

▲설교에는 만족하지만, 위성교회나 최소형교회 교인들의 요구와 필요를 위한 사역이 거의 "채플린"에 부합된다.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관리하고, 소그룹들을 운영하며 그리고 교인들을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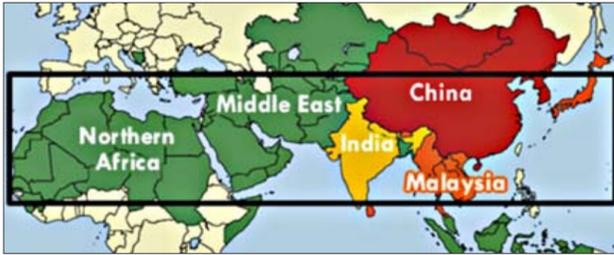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10/40윈도우, 기독교 박해 증가

세계복음주의연맹, 박해받는 크리스천위한 중보기도 관심 필요 밝혀

10/40창(window)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고 아시아복음(Gospel for Asia) 선교회가 밝혔다. 아시아복음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10/40창 지역의 14개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협을 받고, 집이 파괴를 당하고, 권리가 침해당하며, 감옥에 갇히고 있다고 아시아복음선교회의 요한난(K. P. Yohanna) 대표는 말했다.



10/40창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으로 세계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덜 전파된 지역이며, 중국, 인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2년 11월 4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행사의 일환으로 아시아복음선교회의 요한난 대표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한난 대표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일 예배시간 전체를 그들을 위한 기도 시간

로 할애 하거나 아예 하루 전체를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에 세계 150개 국가에서 50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참여했다고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요가라자(Godfrey Yogaraja) 사무총장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의 홈페이지(www.idop.org)에서 밝혔다.

요가라자 사무총장은 특히 2012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부활절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 희생을 당했고, 중국에서는 가정교회

들이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받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전엔 직면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요가라자 사무총장은 역설했다.

시진핑 시대 출범...중국교회에 도움

(1면에서 계속)

역대 세계 강대국의 사례에서 볼 때 문화가 저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중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적 결속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은 소프트 파워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 학원 수를 현재 390여개에서 2015년까지 500개까지 늘리고 중국산 영화·드라마·서적 등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세계적인 미디어 공룡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중국문화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사회갈등의 심화로 인터넷 등에서 각종 불만 비난이 폭주하면서 당국의 사회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기독교는 그래도 중국 지도부의 개방과 관용 정책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종교 정책을 통해 제한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중국 정부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서방에 가려진 중국 내부 사정을

알리기 시작한 1997년 창립된 비영리단체(China Source) 회장, 브렌트 풀튼(Brent Fulton)은 중국 권력 변화에 따른 기독교에 미치는 파장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1. 중국 공산당이 마스-레닌주의나 마오주의(毛主義)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중국을 운영해나갈 것을 말해주는 권력변화이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시진핑 정권의 정책들을 따른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시진핑 시대는 중국 정권이 더 이상 독재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들의 소리에 정부가 반응한다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 역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정치적 중립이다. 직접적으로 정권을 비판하지만 않는다면 종교의 자유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출판 영역에서는 인터넷을 포함해 엄청난 기독교적 내용들이 정부의 규제나 검열 없이 쏟아지고 있다.

3. 시진핑 정권이 강조하는 교육개혁에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상당하다. 현재 의식 있는 크리스천들이 교육 시설들을 설립하며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외국 크리스천 교육기관 등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녀들이 중국 교육 개혁에 일조하고 있다.

4. 시진핑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코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 없이는 종교의 자유나 합법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기독교를 유지하며 군소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 관료와 중앙 정부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은 2-3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혁과 정권 안정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중국을 이끌어가도록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결론으로, 중국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이 이뤄지기 시작할 무렵 세계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중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약 25년 전 펴낸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작 '21세기 교회의 전망(Foresight)'에서 미래 세계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10가지 주요한 동향 중 하나로 중국 기독교의 부흥을 꼽았다. 그의 이러한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기독교의 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의 억압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속주의 등으로 인해 그 힘을 잃을 것인지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당시 5천만 명 가량으로 중국 인구 가운데 5%를 차지했던 기독교인의 수는 현재 1억명 가량으로 8%로 증가했다. 세계 인구로 볼 때는 전체의 약 2%에서 5%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대에도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중국 기독교는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에 퍼진 중국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선교에까지 전진하는 선교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자신의 성품에서 자유하라

시 82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각자의 성향대로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따라 그 성향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혈육의 부모에게서 어떤 천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성령으로 새로운 성품을 받습니다. 그것을 속사람(고후4:16), 새 생명(롬6:4)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자기 소원대로 복 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점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성숙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분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성격적인 충동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은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새로운 성품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살려 나가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때 사람에게서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은 불행해 하는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곁질을 벗고 나오는 아픔입니다. 마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산의 고통처럼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고통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계산하라,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기쁜 것이다"(약1:2).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면 이미 판단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생각이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겠다. 내가 판단하면서 살면 되겠다'

라고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또 이미 생각이 잘못되어졌으니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굽어집니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그 마음이 굽어지고, 굽어진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굽어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바른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마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 성령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 때에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마 5:41). 인간의 힘으로는 오리까지 갈 수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십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은혜로, 웃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열심히, 평강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나라를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으로 살도록 바꾸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시로 훈련하여서 괴로울 때, 무거울 때, 힘들 때 성령으로 삼시다. 성령님이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항상 뛰고 있듯이 그분은 내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나는 오늘도 믿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도, 기쁨도 있고, 구원도,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그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받은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풍성하게 거룩한 생명의 것을 받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UPCA 총회 및 목사고시 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 산하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와 목사고시를 공고합니다.

총회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 총회 제 10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게 됨을 공고합니다.

* 일시: <실행위원회>
2013년 4월8일(월) 3:00PM

<총회>
2013년 4월9일(화) 4:00PM ~4월11일(목) 12:00PM

* 장소: 트렌튼장로교회 (황의춘 목사시무)
주소: 147 US Highway 130 North Bordentown NJ 08505

* 도착공항: 필라델피아 공항 (PHL)
* 문의: (609) 298-2461, (609) 510-9800

총회장 명윤건 목사 서기 김주환 목사

목사고시

2013년 목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2013년 4월8일 9:00AM
◎ 과 목: 성경(구약,신약),성서신학, 예배모범, 교단교리와 규칙 교회사(한국, 세계사), 설교, 조직신학, 논문, 상식, 면접 (설교와 논문, 각 과목의 예제집은 EMAIL이나 우편 총회 사무실을 통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 자격: M Div 이상의 과정을 마친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자)
◎ 구비서류:

1. 이력서
2.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성적 증명서 (신학교 최종 3년)
4. 추천서 (노회장, 당회장..)
5. 신앙 간증서
6. 목회 (사역) 계획서
7. 청빙서
8. 고시 청원서

◎ 신 청: UPCA 총회 사무실 / Attn:고시 위원장
147 US Highway 130 North Bordentown NJ 08505
(Tel: 609-298-2461)

◎ 마 감: 2013년 3월31일
◎ 문 의: 총회 고시부 (609)298-2461, (609)510-9800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UPCA)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이태리에 첫발을 디딘 코레아노

우연한 사건이 먼 훗날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는 경우가 있다. 1983년 11월29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동양인의 모습 드로잉화가 경매사상 최고가인 32만 4000파운드에 팔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드로잉화로서는 역대 최고로 비싼

가격이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크 미술의 대가 루벤스(Peter Rubens 1577-1640)이었기에 유명세를 타게 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점은 따로 있었다. 즉 그것은 조선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루

벤스가 1600년경에 로마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바로크 화의 대가로 카톨릭의 위상을 회복하고 고상하기 위해 웅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장식을 그림에 접목시킨 사람이다. 그는 로마에 머무는 중에 뜻밖에 동양인을 만나 그를 스케치했다.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쓴 우리에게 친숙한 조선인의 형상!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루벤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여 드로잉화로 남긴 그림. 그 그림은 사백년 후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 호기심으로 화답하게 만들었으니 우연의 사건은 놀라운 역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싶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 결과 이태리에 코레아라는 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태리에 우리나라 이름 코레아라는 성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태리 남쪽 카타자르(Catazaro)에서 약34Km 떨어진 알비(Albi)라는 마을은 코레아 성의 집성촌

이다. 그 마을은 코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살고 있다. 그곳은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골이 깊어 우리의 시골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교민회에 방문하여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혈통이 같다고 무척 반가워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매운 것을 좋아해 맥주에 고춧가루를 넣어 마신다고 하니 과연 매운 것을 좋아하는 우리와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는 걸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태리 민간인으로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노예무역상이요, 여행가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Francesco Carletti 1573-1636)다. 그는 아버지 안토니오(Antonio)와 함께 파나마와 멕시코, 컬럼비아, 페루,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중국을 거쳐, 1597년 6월 일본 장기(長崎)에 도착하여 이듬해 3월까지 그곳에 체류했다. 당시 그곳엔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일본의 이차 침략) 때 한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를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시장에서는 보기에 딱한 정황이 연출되곤 했는데 그는 거기서 노예 다섯 사람을 샀다. 그는 노예들에게 세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을 인도의 고아(Goa)까지 데리고 가서 네 명은 그곳에 풀어주고 한 사람만을 데리고 자신의 조국 이탈리아로 갔다. 그를 피렌체로 데려가 공부를 시켰고 자신의 이름인 안토니오라는 이름과 코레아라는 성을 붙여주었고, 이태리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 그 이후의 내역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코리이라는 성씨가 이태리에 존재하게 된 시작이었다. 그 성이 사백년 동안 핏줄을 이어오게 되었고, 그중에 일부는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카를레티는 1708년 피렌체에서 세계여행경험담(Le sue esperienze di viaggio in dodici Ragionamento)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내용 중에 코레아에 대하여 기록했다. 당시 조선은 극히 가난하고 무력했던 나라였다. 그는 코레아라는 나라가 자존심만 한없이 높았다고 여행기에 삽입했다. 일설에 의하면 코레아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조선인의 후예인가를 조사했더니 그리스인의 후예요, 코레아라는 비슷한 성이 있다고 언급한 분도 있다. 그러나 그 논리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이지 싶다. 알비 마을의 두오모(Duomo) 성당 지하실에 묻혀있는 유골들에 대한 DNA를 조사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그 주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4백년전 노예로 끌려와 평생을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가지고 살아갔을 우리 조선인 선배, 그 조선인에 대한 그리움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차피 지구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들이 아니겠는가!

푸/ 른/ 초/ 장

박정인 목사
(새마음 성경교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의 주제였습니다. 철학과 사상, 사회와 윤리, 종교와 신앙, 더 나아가 과학과 의학까지도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떠나본 일이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행복해 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들로 보다 불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프소스(Ipsos)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2%가 '매우 그렇다', 17%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81%가 현재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외적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별 행복만족도를 조사해봤

더니 수위에 오른 나라는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등 극빈국들이었습니다. 풍요의 나라 일본은 44위, 미국은 46위입니다.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행복은 결코 외적 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의 첫째 비결 신면기 10장 12-13절

죄를 용서 받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가 동반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의 입술을 빌려서 자주 이런 말을 되풀이 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

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부귀영화와 공명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없애고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되고 죄와 죄책에서 해

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부모 없이 자라가는 고아들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 없이 사람은 올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원시적인 무한한 고독을 앓고 있는 존재이고 이 무한한 고독은 하나

다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가지기 준으로 해서 사는지 근원적인 진리를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했고 석가모니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처자를 버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 출가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면 허무에 빠지고 탈선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

습니까? 모든 기계의 작동법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기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14:6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머무를 거처가 있

습니까? 모든 기계의 작동법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기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14:6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인생의 긴 방황을 끝내고 55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므로 행복한 일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www.nypc.net

담임목사 청빙

뉴욕장로교회에서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이민 1세와 2세를 위한 신앙교육과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1)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에 가입되어 있는분이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경력 5년 이상인 분
- 3) 한국어, 영어 설교가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1) 한글, 영문 이력서(사진포함)
- 2) 신앙고백서와 목회 계획서
- 3)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 4) 최근 두 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 5) 최종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 분과 교회 홈페이지 주소
- 6) 추천서 2인 이상(추천인이 사인하시고 밀봉된 것)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및 기한

제 출 처 :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P.O.Box 4069
Sunnyside, NY 11104
문 의 : cbnypc2012@yahoo.com
제출기한 : 2013년 1월 31일



지난 2010년도에 본 칼럼을 통해 '2012년 종말론'에 대하여 글을 기고하고 그 허상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한 적이 있다. 이제 마침내 2012년 12월이 왔다. 2012년 종말론의 핵심은 12월 21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지난 2년반 동안에 2012년 종말론은 무시되기도 했지만, 영화 2012년을 포함한 종말론적 재앙을 다룬 영화들과 또한 그 일자가 가까워짐에 따라 매스컴에 의하여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크게 변한 것도 없지만 다른 설명들과 가설들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요즈음에는 2012년 종말론과 관계된 재난을 준비하는 산업들이 인

둘째로 2012년 종말론의 근거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다. 1982년도에 로마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의 새로운 예언서가 발견되었다. 암호 같은 그림 속의 어린양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희생양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 지구의 종말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발생한 이후 즉 2012년에 지구가 종말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2012년의 종말론은 중국의 주역의 예언을 근거로 한다. 2000년 미국의 과학자 테렌스 메케나는 주역을 수리적으로 분석해 시간의 흐름과 64괘의 변화율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이러한 그래프를 '타임 웨이브 제로(time wave zero)'라고 이

잡지에 바이블 코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다. 바이블 코드란 히브리 성경을 바둑판과 같은 매트릭스에 넣어서 의미있는 단어의 배열들을 찾아봄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확인하는 것이다. 바이블 코드로 보면 2012년과 관계된 단어들 태양의 활동과 그의 재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단어 무리가 발견되고 주장했다. 사실 이사야 30:26-27의 문자적 표현은 달과 태양의 활동 변화에 대하여 말하는 표현도 있다.

여섯 번째로 인터넷 상의 모든 자료들을 조합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웹봇의 예언이다. 웹봇이란 전 세계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 핵심적인 단어들을 조합해 언어 엔진을 통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주식 시장의 변동을 그래프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웹봇의 분석은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거부하였는데 그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한다.

일곱째로 또한 일부 학자들은 수마트라의 토바호에 있는 지구 최대 화산이 2012년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여덟 번째로 파푸아 뉴기니의 후리족 전설을 포함해서

종말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팽배하여진 감을 보여준다. 지난 2000년도를 맞으면서 Y2K 소동으로 온 세계가 뒤흔들렸다. 2011년의 헤롤드 캠핑의 종말론도 실패로 돌아갔다. 수많은 사교집단들의 종말론 예언사건들이 실패했다. 그럼에도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이 성행하는 이유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사교집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가 실패하면 또 다른 시한부 종말론이 대두했다. 왜 끊임 없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다.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 지난 Y2K bug의 재난설도, 2012년의 재난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반복되다가 보면 이슬람교의 거짓말하는 소년의 모습이 된다. 까뮈들이 소란을 다 피워서 이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주님의 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목사님의 설교나 기도에도 늘 성령충만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왜 성령충만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의 성령충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벨리에서 김 집사

A: 영국의 17세기 신학자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아무리 애쓰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신교회인 CCC의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도 현대인들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행16:31절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메시지고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행5:18절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C 나사렛교회단의 모토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라"를 강조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되는 것도 역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12: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신자의 입에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신앙생활의 필수 성령충만은 명령, 복수, 수동, 현재형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롬8: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18절의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주로 4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명령형입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불복종입니다. 성령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전성령에 총칼 무장 없이 나가 맨주먹으로 무장한 적과 싸우겠다는 영적 무지인 동시에 교만입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있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며 기도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차에 개스를 주입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21일 세계 종말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기가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재난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말론적인 재난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경각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2년의 종말론의 특징은 한 가지 자료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제시되는 종합적 종말론이다. 그리고 이 종말론은 성경을 이용하는 허황된 이단들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 및 과학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종말론이다.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첫 번째,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장은 마야문명의 달력에 근거한 주장이다. 마야력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원전 3114년 8월 시작해 기원후 2012년 12월 21일에 끝난다. 지구는 6번째 태양이 사라지는 날 종말을 본다 고 한다. 하지만 마야 탐험센터장은 "비석의 마지막 글자는 훼손되어 해석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비석의 내용은 예언이 아니라 7세기 실존했던 발람 아하우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하였다.

를 불었다. 이 그래프는 어느 시점에서 0이 되는데, 이 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고 한다.

넷째로, 태양계의 감춰진 행성 엑스(X)가 2012년 지구와 충돌할 거라는 천문학적인 예측을 한다. 낸시 라이더는 행성 X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니비루라고도 불리는 행성 X는 3600년 주기로 움직이는데 지구보다 4배가 크고 기울어진 상태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비루가 접근하면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고 남북이 바뀌는 현상도 올 수 있다고 했다.

다섯째로 태양 폭풍설이다. 저널리스트인 로렌스 조셉은 "천문학자들에게 의하면 2012년-2013년에 태양 활동이 최고조에 다다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ASA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 매우 사납게 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태양 폭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던 자기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구에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핵폭발시에 방사능 오염이 될 때처럼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100년마다 태양의 변동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News Scientists라는 과학

많은 토속 부족의 전설들이 2012년을 종말의 해로 이야기한다. 그 외에도 뉴에이지는 종말의 시간을 긍정적 물질적 혹은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듯이 종말론에 대한 세상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종말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다니엘이 해석한 느브갓네살이 본 신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마지막의 발가락 시대이다.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해져 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들이 세계적인 규모로 실현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급년에 동부지역에서는 사상 최대의 폭풍이었던 허리케인 샌디와 또한 잇따른 폭풍을 동반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 우리의 세대의 전세계적인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환경적 변화, 기후 변화, 정치적 역학관계 등의 수많은 상황의 진행방향이 성경말씀에 예언의 성취를 보는 시대이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다.

2012년 12월 21일 종말론은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를 외친다고 해도 사람들은 거짓말로 아니면 비웃음으로 받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를 통해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사단의 교활한 숨은 의도이다.

이 시대는 2012년 12월 종말론의 가설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 그랜드 스케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미혹도 극심해져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세계적 규모의 종말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조가 된다(마 24장).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깬 때이다. 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무장할 때이다. 재림의 메시지를 희석하려는 사단의 의도를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계 22:7) 우리는 모두 재림신앙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드리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탬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자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가대를 이끌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락처: 예배위원장 원춘수 장로 (Tel. 813-960-4949) 당회서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탬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청빙 (Sunday School)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EM 사역자

팜비치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석원 목사)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할 디렉터를 청빙합니다.

주일학교 사역 대상: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1. 자격: 신학 대학과 졸업 또는 재학자, 영어 필수(1.5세/ 2세 선호)
2. 제출 서류: 이력서, 간증문, 사역 계획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가능)
3. 접수 마감: 2012년 12월31일
4. 연락처: 담임 목사 한석원 목사: 404-435-3252 sukwonhan@hotmail.com 교육 사역원장 채한림 장로: 561-809-0937 hollychae@gmail.com

• 인터뷰를 통해 하프 타임, 풀타임 조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www.pbkc.org / 561-651-1198)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동역하실 전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주요사역: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
- 지원자격: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로 영어와 한국어 사역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인터뷰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기한: 2013년 1월 31일
- 제출처: 버지니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담임: 서기 백원길 장로, 703-585-6355) Eld. Won Kil Paik 6355 Edsall Rd, Alexandria, VA 22312
- 제출방법: 우편이나 이메일 wonpaik@hotmail.com
- 교회주소: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 교회전화: 703-922-6064

버지니아장로교회 담임목사 민철기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투강베시 우타라(TUKANGBESI UTARA)



인도네시아의 투강베시는 술라웨시의 남동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다. 우타라(Utara)는 남쪽과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월리오(Wolio: 또는 부토네세-Butonese라고도 알려진)와 무나(Muna)족과 가까운 이웃이다. 투강베시라고 부르는 그들의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중에 속하며 시아시아(Cia-Cia)에 매우 가깝다. 15세기 즈음 조호레(Johore)로부터 이주한 이민자들이 부탄왕국을 세웠다. 이 왕국은 투강베시 섬을 포함하며 라야(rajia) 혹은 왕이 통치했다. 1540년에 6번째 라야는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동시에 첫 번째 술탄이 되고 그의 왕국은 술탄국이 됐다. 부탄의 술탄국은 1960년 마지막 술탄의 죽음 때까지 독립을 유지했지만 이후 국제화가 약화되고 마침내 인도네시아와 합병돼 섬의 전통을 잃게 됐다.

삶의 모습

투강베시 섬은 매우 기름지기 때문에 이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주된 생산물은 옥수수, 쌀, 카사바이다. 또한 많은 투강베시족은 어부이며 어선 제조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립과 노동일을 찾아 먼 섬까지 나간다. 그들 중 일부는 되돌아오지 않았고 오늘날 투강베시 고유 종족은 동쪽 인도네시아 도처에 살고 있다.

선원생활이나 제철, 조선업과 늦은 제조업, 또는 밖에서 하는 과격한 노동일은 남성의 몫으로 여겨지며, 요업(도자기 제조)과 직조업(옷감 짜는 일)과 음식 준비와 집안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은 주로 여성이 맡는다.

가옥은 땅 위에 두꺼운 판자로

짓는다. 지붕은 작은 판자, 나뭇잎, 철로 만들며, 집은 몇 개의 창문만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실크와 면과 다른 옷감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 또한 작은 상점들도 있으며 행상인들은 다양한 물품을 팔러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결혼은 일부 일처제이다. 부모들이 결혼을 정하게 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혼 후 남편이 자신들의 집을 지을 때까지는 신부의 가족들과 함께 산다. 아기는 양쪽 부모가 동등하게 맡아 기른다.

투강베시 사회에서 소년소녀들을 위한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강조가 그들의 융성한 문화를 만들어 냈고, 저술활동을 통해 책들을 쓰고 투강베시 문화의 한

부분이 된 장시(長詩)를 쓰게 됐다. 외국어 공부를 촉진시켜서 많은 투강베시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신앙

이슬람은 귀족에게 먼저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일반평민들과 함께 그들의 종교적 지식을 나누긴 했지만 매우 제한시킴으로써 시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오늘날 투강베시 우타라 족의 95%가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이 마을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보호하고 돕는 영들, 병을 발생시키는 악한 영들과 수확의 영들과 수호의 영들을 포함한다. 조상신들은 그들의 살아있는 후손들이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도움

을 주거나 혹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투강베시는 또한 자연을 신의 창조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한다.

수피즘(Sufism, 이슬람교의 신비적인 형태)도 투강베시족 사이에 존재하며, 수피들은 명상으로 알라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알라로부터 직접 특별한 내적 지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힌두신앙이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윤회(輪廻)를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투강베시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이 없다. 또한 현재 그들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여전히 중보와 전도는 예수의 복음을 그들 종족에게 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인권문화진흥상 수상자에 투투주교 선정

유네스코가 29일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81) 주교를 제3회 유네스코-빌바오 인권문화진흥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국제 배심위원단은 투투 주교가 국가적·국제적 단계에서 인권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점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인권문제 해결에 헌신한 점을 인정해 그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투투 주교는 민주적이고 인종차별 없는 남아공 사회를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진실화해위원회(TRC) 대표로서 국가 재건에도 공헌했다"면서 "이는 갈등을 겪는 다른 사회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투 주교가 비폭력을 외치면서 차별과 부당에 맞서 용감하게 활동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투투 주교는 백인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 정권 당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등 남아공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지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로 꼽힌다.

시상식은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투투 주교의 장녀 탄데카 투투 가수가 아버지를 대신해 수상할 예정이다. 유네스코-빌바오 인권문화진흥상은 지난 2008년 스페인 빌바오(市)의 기부로 설립됐다. 유네스코가 격년마다 교육·연구 면에서 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조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중국 삼자교회 지도자 정광훈 주교 소천

중국 삼자교회 지도자인 정광훈(丁光訓) 주교가 지난 22일 소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 인

터넷판은 "지난 22일 뛰어난 애국 종교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정광훈 주교가 향년 97세의 나이로 중국 난징(南京)에서 사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중국 CCTV는 3분여의 리포트 기사로 그의 죽음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최고위층 인사들이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장례식은 27일 연속한 분위기 가운데 거행됐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어판 위키백과에 따르면 1915년 출생한 정 주교는 중국의 개신교 애국운동과 현대적 신학, 중국 삼자교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정 주교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중국 난징연합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신학이 사회주의와 해방 신학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한국 및 세계 복음주의 신학과 다르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또 그가 이끌었던 삼자교회가 중국 내 가정교회와의 연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우심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 교수는 "그가 받은 교육이 사회주의사상 신학교육인 데다 현 중국 정부 내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 삼자기독교계 지도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 쓴 정광훈 주교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 이슬람영화 제작편 7명에 사형선고

이집트 카이로 형사법원이 28일 반(反)이슬람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 제작에 관여한 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결석재판에서 영화 제작과 관련된 름

트교도 이집트인 7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카이로의 그랜드프티(이슬람 율법해석의 최고 권위자)에 판결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9월 공개된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세계 이슬람권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영화 제작자로 알려진 나콜라 베슬리 나콜라, 전미콕트교협회 설립자 모리스 사데크 샤리드, 이 협회 대표 나빌 아디브 바사다 등이 신성을 모독하고 파벌주의를 자국해 국가 통합과 사회 평화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7명 중 5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1명은 호주에, 다른 1명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미국 온라인 공교육 인기

미국에서 '온라인 스쿨'이 무너진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학교는 학생이 시험으로 학업 능력을 평가받는 등 공립을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놓은 것 말고는 일반 학교와 별반 다른 게 없다. 성적 우수자와 예체능 특기자 등 일반 공립학교를 다니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학생이 주로 다니고 있다.



신체장애를 지닌 학생과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한 학생의 안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학생 개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과정도 온라인 학교가 지닌 최대 장점 중 하나다.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 만큼 연방 교육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전국 규모의 영리 교육업체들이 수업 등 학교 운영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부자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와 비슷하다.

과목마다 최고 수준의 전담교사가 배정돼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들로서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이런 잇점 때문에 공교육 수준이 낮은 주에서 온라인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게다가 미국의 공교육 평가에서 바닥권을 면치 못

하는 조지아 주에선 '조지아 사이버 아카데미' 등 온라인 공립학교에 1만5천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다고 28일 애틀랜타저널(AJC)이 전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온라인 학교가 학생의 '사회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성격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왕따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아동심리학자는 "왕따 해결책은 도망가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학적 변화가 한국인 정체성 변화시켜"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NYT는 귀화인으로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의 예를 들어 이 의원의 당선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은 교과서에서 '한 필코',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다인종 사회로의 변화 국면을 맞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NYT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농촌 남성과 결혼하는 동남아시아 여성의 급격한 증가를 들었다. 한국의 결혼 이민자 수는 2007년 12만7천명에서 지난해 21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 등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온 여성들이다. 새로 결혼하는 10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했다. 전체 학생 수는 4년 전에 비해 100만명이 줄었는데 다문화가족 학생수는 매년 6천명씩 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급증했다. 2007년 26만명인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55만3천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제외한 수치다. 이 의원은 "한국에 다문화사회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330-5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3-436-5770 서울시 중랑구 독성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성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지구 북동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역사 북구 중앙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3676(로마한인) VIA DEI QUINTILI 32-33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성동 133-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점심회를 위한 현대예배)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점심회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김포시 수지구 북동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오후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86-996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5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정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말·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 마포구 수유동 221-45 (142-073)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6: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양곡읍 양곡로 415 www.yan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학교: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결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031)253-527-2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1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84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일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5-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3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읍 302-67 (140-031)

특/ 별/ 기/ 고

한국교회와 WEF, WEA, 로잔운동 (2)



노봉린 박사(Th.D. 하와이신학대 교수)

2. WCC의 신학적 문제

1) WCC신학분과위원회: 상황화 신학

필자가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자주 WCC에 대하여 듣던 이야기는 "WCC는 세 개 분야의 주도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WCC 조직체, 재정, 신학교육 주도권이다. WCC에 속한 유럽과 북미 신학교들은 1970년 전에 벌써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지 오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에큐메니칼 신학을 제3세계 신학교에 전달하기 위하여 WCC 신학분과위원회 TEF(Theological Education Fund)가 1970-1977년 동안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강조하는 "The Third Mandate: Contextualization"라는 간판을 내걸고 5백만 달러의 신학교육 원조금을 마련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대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아시아신학자들이 TEF 장학금을 받고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WCC에 속한 신학교 도서관에 무료로 자유주의 신학 서적을 보급하였다. 필자가 1970년 ATA총무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WCC에 속한 신학교들은 이미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학자도 많았고 도서관에는 40,000-50,000권의 신학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반면에 복음주의 신학교는 수는 많

는데 학문적 자격을 갖춘 교수들도 드물었고 도서관에는 신학서적도 얼마 없었다. 에큐메니칼 신학교들은 동남아시아의 ATESEA, 인도의 Serampore College Accreditation를 통하여 인가를 받았는데 복음주의 신학교들은 인가도 없이 학사,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었다. 결과는 복음주의 신학생들이 자유주의 신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에큐메니칼 신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었다.

서 혼합주의며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ATA 총무로 14차의 ATA 신학자 토론회를 마련하며 WCC 신학의 문제점과 신학교육에 대해 두 분야를 다루었다.

첫째로 WCC의 종교대화분과위원회(총무 Dr. Stanley J. Samartha와 Dr. S. Wesley Ariarajah)를 통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추진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신학"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태국신학교에

는 복음이 아시아의 종교와 상황에 적응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EF가 주장하는 상황신학은 정통적인 선교사가 여러 선교지 상황에 맞는 "토착화 방법"(Indigenous Method)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초과해서 복음 자체를 상황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복음이 변질된 신학이 아시아 신학교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필자는 ATA를 통하여 1982년 8월 총정로에 있는 아세아신학대학(ATS)에서 상황신학에 대한 "ATA 신학자토론회"(신학자 60명)를 가졌고 곧 이어 "제3세계 복음주의신학자 토론회"(아시아신학자 30명, 아프리카신학자 15명, 남미신학자 15명)를 개최하였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TEF 상황신학을 비판하며 복음주의적인 상황화에 대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선포하였다. 필자는 그때 2개 신학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편집하여 "The Bible & Theology in Asian Contexts"(1984, 404p)를 출판하였다.

부활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WCC 인력, 선교, 재정자원을 수평적인 사회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비 성서적인 신학을 대항하여 ATA신학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편집하여 8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중의 3개(Bible & Theology in Asian Contexts,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God in Asian Contexts)는 신학교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2010년 8월 ATA 40주년 신학자 토론회가 홍콩에서 열렸을 때 200여명 복음주의 신학자가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ATA는 필자와 다른 두 ATA 총무 공동으로 40년의 ATA역사를 기록한 책을 출판하였다(Bong Ro, K. Gnanakan, J. Shao. New Era, New Vision, 2010, 186p).

1973년 방콕에서 WCC 주최로 열린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집회는 새로운 구원관을 선포하였다. "오늘의 구원"의 메시지는 여제의 영혼구원이 아니라 "

다(필자는 그때 당시 양양의 ACTS 교수로 있었다). 인도의 Pune 도시에 있는 Union Biblical Seminary에서 모였는데 인도교역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Sunderarak 박사는 필자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에 Bangalore에 가서 인도의 제일 큰 Church of South India 에큐메니칼 교단 목회자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경건시간에 한 목사님이 성경과 힌두교 경전인 Bhaghaba Gita를 읽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인도 교회 복음주의 목사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노봉린 교수를 초청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에 대해 듣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인도의 대 교단들이 교회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신학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힌두교인에게 전도할 필요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WCC, ①조직체②재정③신학교육 주도권 갖고 상황신학화

물소신학, 제3눈신학, 음양신학 등으로 종교다원주의 주장

십자가-부활-구원을 해방신학, '오늘의 구원' 신학, 사회복음으로 전환

2)아시아교회의 신학적 문제

아시아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였다. TEF의 상황신학은 아시아의 신학교에 홍수같이 침투하고 있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제3세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공 상황(Apartheid)에서의 복음은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 복음이며,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남미 상황에서의 복음은 빈부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아시아의 상황신학은 아시아의 전통종교와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서 가르치던 일본 선교사, Kozuke Koyama(전 ATESEA총무-싱가포르)의 "물소신학"(Water Buffalo Theology), 대만의 송정선 박사의 "제3눈신학"(Third Eye Theology), 이종용 박사의 "음양신학"(Ying Yang Theology)은 예수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였다.

송 박사의 "제3눈신학"은 예수의 가르치심을 3개의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제 1각도는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신앙이며 제 2각도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서구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며 제 3각도

두 번째의 신학적 이슈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해방신학"과 "오늘의 구원" 신학으로 사회복음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용복 박사의 "민중신학," 또한 인도의 M. Thomas(WCC Vice President, United Theological College 학장, Bangalore)가 쓴 "Salvation and Humanization"(1971)은 복음을 인권주의, 빈부격차, 사회복음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회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폴 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Arthur Glasser박사는 이 방콕 모임에 참석한 후 필자가 가르치고 있었던 싱가포르 신학교에 와서 보고하기를 "뉴욕에 있는 NCC의 대표인물이 말하기를 '오늘의 공산주의 중국은 미국보다도 더 복음화 되어 있다'"고 하였다.

1995년 인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EFI) 총무인 Francis Sunderarak 박사가 매년 모이는 EFI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필자를 초청하였

이외에 WCC에 속한 대 교단의 신학적 문제는 동성결혼을 승인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미국의 대 교단에서는 2000년대부터 동성결혼을 본격적으로 승인하기 시작하였다. 성공회의 Gene Robinson 목사는 동성애자로 2003년 감독으로 취임되었고 다른 교단들도 줄을 이어 동성결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반젤리컬 루터란 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와 유니티드처치 오브 크라이스트(United Church of Christ)(2005년), PCUSA (2011년). 현재 미국감리교(UMC)내에서 동성결혼 찬반의 그룹이 열렬히 논쟁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교단으로부터 탈출하여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 전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호에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본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국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아모스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16:13-20
(3) 논문 제목 - 줄기세포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누가복음9:23-27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시 당일엔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교사를 지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본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본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것 5월 17일-21까지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3.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201-981-0009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허상회 목사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3.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3)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7(Fri) - 20(Mon), 2013.
2) Place: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Amos 9:11-15
(2) NT Exegesis Text - Matthew 16:13-20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Stem Cell Research and Application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① NT: Luke 9:23-27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eo1004@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August of 2013.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3.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Heo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amuel Heo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201-981-0009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Chan w. Song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Samuel Heo (201)981-0009 heo1004@hotmail.com
3) nquires in English: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17. 농업과 축산의 시작

인류가 '떠돌아다니며 수렵과 채집을 하다가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발달하면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류의 설명은 교과서나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실로 믿고 있다. 성경을 믿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런 설명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1. 최초의 농업
진화론적인 역사학자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 시대인 BC 1만년경이라고 말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라크 남부 지역의 수메르인들(BC 9천5백년 경)이 최초로 농경을 시작하였고, 인도(BC 7천년 경), 이집트(BC 6천년경), 중국(BC 5천년 경), 중앙아메리카 (BC 2천7백년 경) 등으로 전파되어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다른 이런 고고학적인 정보들은 글자가 고안되기 이전의 것일 뿐 아니라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가정"한 연대측정법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두기 어렵다. 현재 탄소 14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먼 과거일수록 훨씬 더 오래된 연대가 나온다. 예를 들면 약 4500년 전인 노아홍수 당시 생물체는 약 5-6만년, 홍수 이후 생물체에서는 7천년-3만년 정도로 측정된다. 또, 고생대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지층에 들어 있는 석탄들에 들어있는 탄소 14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는 수억년 간의 실제 시대가 아니라 동시대인 것이 확실하다(그 시대는 1년이 채 안 되는 노아홍수사건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보다 긴 이 연대들은 믿을 수 없는 연대들인 것이다.

그러나 농경 문명이 수메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

서는 조금 늦게 발견된다는 순서는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이동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채소와 과일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일부 가족은 처음부터 가족으로 창조되었다. 창조 6일째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25)라고 가축과 일반 짐승을 구분하셨다. 또, 아담의 아들 아벨은 이미 양을 쳤으며(창4:2), 가인의 7세손인 아말은 유목생활하며 가축을 치는 첫 조상(창4:20)이라고 기록되었다. 아벨이 아말보다 먼저 양을 쳤는데도 아말을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라 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거나 고기를 먹기 위한 최초의 축산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아가 방주에 실은 동물들 명단에도 가축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창 7:13-15; 8:1). 또, 원래 창조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적어도 인류의 범죄사건 전에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도 않았다는 창세기(1:30). 그러나 노아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는데 이때에도 가축만은 예외로 하셨다(창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들을 다스릴 권리와 능력을 주셨으

또, 가축화 과정에서는 생식 기간이 길어지거나, 외형이 다양해지거나,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돌연변이나 유전정보 재조합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현상 때문이다.

모든 가축이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사람이 길들인 것이 아니다. 어떤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위해!

3. 진화의 반대는 성경
진화론 즉 진화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화의 반대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화론적인 역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로 복음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까? 역사적 사실 중에서 진화론이 가장 부인하는 역사는 창세기 1-11장이다.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창조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는 절대적으로 이 창세기 1-11장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깊이도 창세기 1-11장을 통해서만 알

농업, 축산업은 창조 때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배려 돌연변이 통한 동식물 개량시도는 완전 실패

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범죄한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농업이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창3:17b-19). 그러므로 농업은 인류가 오랜 기간 수렵(사냥)과 채취를 하다가 정착하면서 이런 문명이 아니라 맨 처음 사람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피를 흘리는 사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니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과 농사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창4:2).

2. 최초의 가축
진화론적인 세상 정보에 의하면 약 1만2천년 전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개를 가축화 하였고 이어서 소가 1만년 전 그리고 염소, 양, 돼지는 약 8천년 전, 말은 약 3천년 전에 그리고 칠면조는 16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정보근원에 따라서 그 순서와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대측정자들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주장은 이 동물들이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가축화'라는 과정을 통해 지금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므로(창1:26, 28) 사람들은 이 가축들 외에도 다른 야생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화론자들뿐 아니라 많은 창조론자들도 개의 조상으로 (방주에서 나온) 늑대를 지목한다.

진화론자들은 늑대의 가축화 과정의 핵심을 돌연변이(mutation)로 해석하려고 한다. 돌연변이가 진화(evolution)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늑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들이 돌연변이를 겪으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사람에게 유익한 특징이 나오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하여 현재의 운송한 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우를 길들인 한 실험에 의하면 불과 2-3세대 만에 공격성이 약하고 길들여진 여우가 나타났다(Bioessays, 31 (3): 349-360). 이 실험 결과는 가축화가 오랜 기간이 필요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유전정보의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 결과로 갑자기 나타난 변이(variation)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 때 과학자들이 돌연변이를 통해 동식물을 개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시도들은 철저히 실패했다. 현재 식물과 동물의 육종에는 유전 재조합의 결과를 인공적으로 선택하는 변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 있다. 그러므로 진화는 교회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다.

진화론적인 농업의 기원과 가축의 기원을 갖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성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을 통해서 판단할 때 진화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치들을 보거나, 진화론에 비해 아주 짧은 인류의 문명 역사를 보아도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시대로 이어지는 역사는 사실이 아니다. "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창4:22). 바벨탑사건 이후 흩어져 살면서 다듬어지지 않은 석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좀 더 다듬어진 석기를 사용한 사람들, 그리고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이다.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시어 농업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언제나 가깝게 있도록 가축들을 창조하시어 축산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는 창조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희생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하나님 형상) 사람에 대한 확증이다. 화목제의 어린양으로 오신 창조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리더십(13)-창의성 리더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창의적인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이 세상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창의성 있는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살려 자신만의 목소리와 모습을 드러내며 즐거워합니다. 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창조적인 인물 7명을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존중감이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집중력,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셋째, 성품이 단순하고 천진성이 있으며 반면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원숙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며 질문이 많고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감정들을 생산적으로 풀어 낼 수 있는 원숙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지지자 혹은 멘토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기발한 생각들을 이해하며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지지자 역할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섯째, 주류보다 경계선으로 남아있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보통 10년 주기로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어냅니다. 오랜 시간을 집중하며 자기를 연마하는 힘을 소유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처음 10년은 자기 분야를 탐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그 후 급격한 도약을 이루면서 10년을 주기로 자기가 이룬 세계를 세상과 연결시켜 의미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이렇게 창의성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보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창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창의성 있게 바라보면 자녀가 창의성을 말할 시 커져 자기 의지가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건없이 수용해주고 사랑해 줄때 그들의 자존감은 높아질 것이며 자녀와 깊은 감정적 교류를 맺는 친밀한 부모가 되어주면 자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하는 열정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자녀의 새로운 생각을 인정해 주며 인지적인 뒷받침을 제공해주는 부모로 인해 자녀의 창의성이 꽃이 피게 됩니다.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 자녀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높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지시하는 그런 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의 창의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창의성있는 성품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부모들이 먼저 또 다른 시각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창의성으로 가득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 841-0821, Fax: (704) 841-1625 www.kpcac.org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아침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 422-6950, Fax: (303) 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 오후 8:00 수요성경: 오후 8:00 Tel: (410) 461-1235, Fax: (410) 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licott City, MD 21042</p>	<p>벤델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국):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국):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국):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국): 오후 7:30 주일5부예배(한국):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대학: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8) 425-4579, Fax: (508) 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 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254) 634-8705, (254) 501-4933 701 Sealeybark Road, O'Connell,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 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8</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 527-0981, Fax: (206) 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seattle.org</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사별: (501) 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rasc.org</p>	<p>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 755-1490, 타벨: (915) 751-4365 3416 Alt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1) 542-0288, Fax: (251)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 634-8705, (254) 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 941-4447, Fax: (703) 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에스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c.org Tel: (804) 560-7500, Fax: (804) 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4시(금, 토, 주일) Tel: (410) 203-0516, Fax: (410) 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Tel: (253) 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Tel: (253) 535-6207, 531-8424 Fax: (253) 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 536-6675, Fax: (253) 542-9515 www.hwali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pac.org Tel: (480) 726-0191, Fax: (480) 857-390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2-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 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 739-1004, Cell: (808) 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 277-2936, 557-1778, 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wal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미국 영적각성과 부흥 회복하자” 한인/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 성황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초청부흥 대성회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교회성장 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첫날 집회는 히스패닉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과 배우 송채환 집사의 간증,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의 기도로 이어졌다.

이어 진유철 목사(남가주교회장)의 사회로 부흥회가 시작돼 박희민 목사(대표대회장)와 넷즈 고메즈 목사가 대회개회사를 했다. 박희민 목사는 “이번 집회로 미국의 영적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의 새로운 불이 지펴지기를 바란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다. 청교도의 신앙과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럴 때 한인교회와 히스패닉교회가 연합해 영적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을 회복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넷즈 고메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추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셨던 부흥의 물결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승훈 목사와 후

안 마르티네즈 목사가 환영인사를, 남가주장로회가 단이 특송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성령의 시대’(행19: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되길 기대한다. 성령충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번 집회동안 성령충만 받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의 헌금기도, 히스패닉찬양팀의 헌금 특송으로 이어졌다. 또한 특별기도의 시간은 이성현 목사(트리플교회), 김영빈 목사(세계비전교회), 오스카 라셀라 목사, 해럴드 케이세로스 목사가 인도했다. 예배는 변영의 목사(남가주교회 협동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용덕 목사(OC교회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는 히스패닉 찬양팀과 주님의영광교회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으며 박희우 목사가 기도, 송정명 목사(LA 성시화운동 대표회장)와 미구엘 콘쿠안 목사가 대회개회사를,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 상임회장)가 환영인사를, 나성영락교회 성가대가 특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부흥대성회 첫날 집회에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송을, 그리고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담임)가 ‘어느 숲속 이야기’(삿9:7-16)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날 집회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열린 목회자 대상 교회성장세미나는 박기호 목사(풀러선교신학원장) 기도 후 박희민 목사(대표대회장)가 환영인사 및 감사소개를 했다. 이어 열린 특강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4차원의 영성’, 홍성욱 목사가 ‘교회성장과 전도’, 민경엽 목사가 ‘교회 목회계획’, 이태근 목사가 ‘교회지역 섬김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신임 박우진 회장 3대 비전제시 제33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정기총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33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OCKCA 회장 손찬우 집사) 제33회 정기총회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 박우진 집사를 선출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박우진 집사는 “본 연합회가 나아가 할 3대 비전이 있다. 첫째 우리의 본래 사명인 전도 선교에 힘쓰겠다. 할 수 있는 한 전도와 선교사역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둘째, 교회연합과 화합을 도모하겠다. 미자립교회를 위해 훈련, 구제, 봉사활동을 할 것이며 대형교회와 중소교회 그리고 협력

업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셋째, 청소년 선교에 힘쓰겠다. 1세와 1.5세 그리고 2세대 함께하는 성가제, 체육대회 등 만남의 장을 열어 축제의 장으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공지하겠다”고 당선 비전을 밝혔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손영혜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서양훈 이사가 대표기도를, 이자용 목사(자문위원)가 아름다운 꿈을 이루자(민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주도진 목사(자문위원)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2부정기총회는 손찬우 회장 사회로 시작, 임재선 장로(이사장)의 개회기도, 회원호명,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잠시 정회 후 시작된 회의에서 회장선출 및 인준, 신임회장 인사, 신안건 토의 등이 있었으며 신임 박우진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마쳤다.

한편 부회장과 신임 임원단 선출은 내년 1월 이사회 정기총회 때 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홀리원 콘서트 ‘루돌프 사슴코를 찾아서’ 18일 카페베네, 믿는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 공연기획팀 믿는사람들(운영자 제레미박, 폴 황)이 오는 18일(화) 오후 7시30분,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 카페베네(마당물 1층)에서 “믿는사람들과 함께하는 홀리원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루돌프 사슴코를 찾아서’”의 막을 올린다. 믿는사람들이 진행하는 홀리원 콘서트는 청년찬양사역자들을 무대에 세워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뮤지션의 재능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지난 10월 30일 ‘첫 번째 이야기’ 공연을 가스펠하우스에서 가진바 있다.



ANC은누리교회에서 열린 제24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축제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분장한 찬양팀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흥겨운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제24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성황

제24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갈6:14)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오후3시 ANC은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누리교회를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된 이날 축제는 이름그대로 장애인들에게 흥겨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새소망교회 KAFHI에 1만2천불 전달 여선교회 주최 구제선교바자회 통해 기금 마련

메릴랜드 버톤스빌에 위치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가 지난달 18일 추수감사주일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 이사장 배현찬 목사)에게 1만2천 달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본 교회 여성교회(회장 김미영 권사)가 구제선교를 위해 개최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기아대책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에게 전해졌다.

이날 행사는 7가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심슨, 백설공주, 슈렉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분장한 봉사자들과 함께 게임하며 사진도 찍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들 봉사자들은 찬양팀으로 나서 함께 찬양을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시간에 찬양, 바다위십 및 수어찬양, 본 교회 김태형 차세대 담임목사의 말씀선교, 마가렛 이 찬양사역자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저녁만찬이 있던 후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사랑의 축제는 ANC은누리교회가 주관하고 나성영락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은혜한인교회, 베렐한인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선한정지교회, 인랜드교회, 애브리데이교회 등 25개 교회와 아시아발달장애서비스, JOY장애인선교회, 한미특수교육센터 등 11개 단체가 참가했다. (박준호 기자)

이날 안인권 목사는 설교를 통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으로 수확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수확절은 하나님께 때와 장소, 물질과 사람을 통한 순종의 절기”라며 “마지막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배움과 나눔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목사는 온전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실현해 준 새소망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현금은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가 후원하고 운영하는 캄보디아 에이즈고아원 아이들의 정규교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AFHI는 10주년을 맞아 설립과 발전에 공헌자로 선정된 안인권 목사와 새소망교회에 감사공로패를 전달했다. 새소망교회는 그동안 주요 긴급구호(인도네시아 쓰나미, 미얀마 나르시스, 아이티 대지진 등) 때마다 바자회를 통해 구호헌금을 마련해 국제기아대책에 총 5만여 달러를 전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모나리자 스킨케어

Christmas Special Price 12월 31일까지

Thanksgiving Day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샤워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1회 케어도 환원합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월드쉐어, 금식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국제NGO 구호단체 월드쉐어(디렉터 양 윤 목사) 금식(The Fasting)팀에서는 금식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금식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내 이웃의 아픔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도록 하며 △한정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기도하고 함께 울부짖을 수 있도록 하며 △우리 자녀들이 본 캠페인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자녀들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금식과 나눔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며 파괴



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위해 실시하고 있다. 월드쉐어의 김희기 팀장은 “우리가 매일하는 식사 중 하루 한끼 혹은 1주일일에 한끼 정도 금식을 통해 지출되지 않은 식사비용을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웃사랑을 실천



제3기 북미주 Chinese/American교회성장 세미나 은혜한인교회에서 대만 목회자 70여명 참석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는 대만 목회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는 북미주에 거주하는 대만 목회자들이 한인교회의 금성장과, 한인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나누고 배우고, 들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은혜한인교회 선교비전에 대해서도 듣게 되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특히 동 교회가 새신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인 GRACE ENCOUNTER를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팀 멤버들의 헌신과 수고를 직접

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교회와 개인은 2013년 2월까지 월드쉐어로 신청을 하면 현금부투와 포스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The Fasting의 모든 후원금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본 캠페인 이 지정된 사업에 사용되며 모든 캠페인의 결과는 2013년 언론매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세한 문의는 (213)784-3227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쉐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강사로서 한기홍 목사는 첫날 저녁 강의시간을 통해 ENCOUNTER의 주말수강회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27일 동 교회 새벽예배에는 대만 목회자들도 함께 예배드림으로 한국교회의 끊이지 않는 새벽 기도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차이니스/아메리카(chinese/america) 목회자들의 목회자 사역논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감한 이번 세미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고, 영적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차이니스/아메리카 교회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동부교계 기사판



12월 이노비 아웃리치 콘서트 스케줄 발표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12월 이노비 아웃리치 콘서트 스케줄을 발표했다. 이노비는 지난 1일 뉴저지초대교회 장애아동부서 대상 콘서트를 시작으로 △7일 오전 11시: 홀리네임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암환자 모임 △15일(토) 오후 1시: 코코장예인서비스센터(프라이미교회 내) △22일(토) 오후 1시30분: 뉴저지말말선교회 △23일(월) 오후 2시30분: 맨해튼 드윗너스홀

고어헤드선교회 '2012성탄열린음악회'

고어헤드선교회(회장 이상조 목사)가 주최하는 무료 '2012성탄열린음악회'가 미동부 지역 4개 교회에서 열린다. 가수 마로니에가 공연하며 CCM가수 안젤라 조셉이 특별출연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일(목) 오후 8시 뉴욕호신장로교회 △7일(금) 오후 8시 매릴랜드한우리 침례교회 △8일(토) 오후 7시 필라델피아동성교회 △9일(주) 오후 6시 뉴저지팰팍한인교회.

뉴욕교협 샌디 피해교회 구호금 신청 공지

허리케인 샌디(Sandy) 피해 한인교회 돕기 모금을 하고 있는 뉴욕 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30일 마감을 앞두고 회원교회들의 피해상황을 알려줄 것을 공지했다. 뉴욕교협은 30일까지 모금을 마감한 후 피해구호 신청을 한 교회 명단을 정리, 재해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웅 목사)에서 피해가 큰 교회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뉴욕교협은 이와 별도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문의: (718)358-0074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성전 봉헌예배 참석 목사들과 장로들이 기념촬영했다. 가운데가 김종덕 담임목사

뉴욕실로암장로교회 성전봉헌예배 2일...교회부지 내 증축도 준비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가 지난 2일 저녁 성전봉헌예배를 드렸다. '봉헌'은 빛 없이 구입했다는 의미로 동 교회는 부지 내에 증축을 준비하고 있다. 실로암교회가 소속된 RCA 교단 중심으로 드러진 예배는 김종덕 목사 사회로 기도 황원진 목사, 성경봉독 이종국 장로, 말씀선포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드러졌다. 한재홍 목사는 "기쁨의 자"(롬16: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의 희망사항은 첫째,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둘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라며 "이런 복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본문의 보배, 브리스가과 아글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전봉헌식은 김종덕 목사와 교인들이 봉헌식을 교독한 후 성전 구입 보고(김해만 장로), 감사패 증정(김원도 장로, 엘리자베스김 변호사), 축사(송홍운 RCA뉴욕한인교협 회장, 김종훈 뉴욕교협회장, 최예식 뉴욕목사회 회장) 등이 있었고 축도는 고재철 목사가 했다. 뉴욕실로암교회는 1981년 가정에서 시작돼 1985년 RCA에 가입했으며 1987년 김종덕 전도사가 담임한 후 그해에 목사안수를 받고 지난 25년간 사역했다. 또 1991년 구입한 플러싱 예배당을 매각하고 현 예배당을 구입한 후 지난 9월 23일부터 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새 성전 장소는 구 엘리자베스교회(담임 이종길 목사) 자리로 매사이드(35-25, Bell Blvd)에 위치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이사장 이대연 장로/대표 최예식 목사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18회 정기총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이사회(이사장 이수일 장로)가 지난 3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이대연 장로(뉴욕연예교회)를 선임했다. 대표 최예식 목사(뉴욕복원교회)는 연임됐다. 지난회기 뉴욕교협이사장을 역임했던 신임 이사장 이대연 장로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자라는 부분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현 뉴욕목사회 회장이기도 한 대표 최예식 목사는 "목사회 회장 된 것이 청소년센터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청소년센터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이 소문나 영향력이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앞줄 가운데 이대연 이사장(왼쪽), 최예식 대표.

다. AYC 학원사역부 사역(Life Together Ministries)은 6개 학교 사이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스테튼아일랜드와 브루스, 롱아일랜드 지역에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한재홍 목사는 청소년센터의 두

가지 이슈(서니사이드 셀터와 전 학원사역부 통합문제)에 대해 보고했다. 셀터는 92만 달러에 계약 중이며 상태미려 현 교협건물 판매금과 함께 교협활동과 청소년사역에 적당한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 학원사역부(위원장 양희철 목사)디렉터 최지호(목사)와 통합 문제는 실무진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는 양희철 목사가 1월중 귀환하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스앤패밀리포커스(대표 이상숙 전도사)도 청소년센터 우산 아래 사역을 협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2013년 예산 28만 달러를 통과시켰다. 2012년 결산은 수입 364,030달러, 지출 371,309달러로 보고했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정부 펀드를 받기위해 7월부터 시작한 회계연도를 뉴욕교협과 같이 10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차이가 나는 3개월은 특별회계로 취급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용자제공 설명회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용자제공 설명회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주최

크리스천교회(제자회)(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가 주최한 '개척교회 설립지원 및 용자제공 설명회'가 지난 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뉴욕위원의 목회자들에게 교회개척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저지 담담 사역자와 메트로폴리탄 지역 지방회장, 한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교단 측은 교단 소개와 교단 가입 절차, 교회개척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입하려면 일단 교단을 옮겨야 하는데 그 절차는 사무위원회와 인터뷰, 교단역사 과목 이수 등이 필요하며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 후 교회개척 소명 확인과 객관적 능력 확인을 받고 훈련에 들어간다.

이 훈련은 일대일 코칭이 뒤따르며 사역을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데, 예배당 건물 컨설팅, 목회계획 세우기, 건축기금 마련, 파회헌신 등 127년 간 노하우를 제공해 현재 80%의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교회은행을 통해 받는 용자는

간편한 서류, 무이자, 무상, 용자액 조정 등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개의 교회를 천개의 방법으로"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목회자(평신도지도자)는 (847)987-8784(노동국 목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800년대 초에 분열이 많았던 200여년 전 시작된 이 교단은 인디언폴리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성만찬을 중시하며 로고에도 성배를 표시하고 있다. 분열된 세계에서 교회일치를 추구하는 교단으로 성서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본신앙이 있지만 교리는 없다.

5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23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평신도 중심, 여성 존중, 소수민족 존중 등을 추구하며 교단에 가입한다고 해서 신앙노선을 바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전역에 60여 한인교회와 있으며 뉴욕에는 컨셉교회(이은수 목사), 뉴욕선한목자교회(최현준 목사) 2교회가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중부교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지난 2일 저녁 퀸즈클리지 플라즈 오디토리움에서 제 5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마쳤다. For Hop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한미정신건강협회, 뉴욕실버미션이 함께한 이날 공연 수익금은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및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에게 전달됐다. 공연은 광명국(솔리스트)양상봉



디렉터) 지휘로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 전체 53곡을 연주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50여명 참가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가 29일 퀸즈클리 어뷰 골프코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기독교방송 후원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했다.

2회째를 맞이한 이날 골프대회는 다소 쌀쌀하지만 맑은 날씨 가운데 뉴욕 일원의 목회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예배를 마친 뒤 기념촬영 후 곧바로 미리 맞춘 썸(Sum)끼리 경기에 들어가 그린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KCBN 사장대행 문석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미주기독교방송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며 "희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미주기독교방송이 중단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회를 마친 뒤 방직각 원로목사는 "기독교방송을 후원하는 골프대

회에 날씨가 좋았고, 성도들과 뜨거운 교제와 더불어 후원금을 마련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거삼득의 특별한 날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캘러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챔피언에게는 트로피와 담채 위니아의 공기청정기, 남녀 1등에게는 트로피와 국보 엘리자시크 상품권, 2-3등에게는 국보 엘리자시크의 상품권, 남녀 장타상에는 산삼 드링크 및 골프웨어 상품권, 원로목사들에게는 이틀생식 개성훈살계기스(159달러 상당)가 각각 주어졌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KCBN 수신용 라디오가 주어졌다. (기사제공: KCBN)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뉴욕젯세미나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욕호신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베다니교회, 어린양교회, 유니온연합침례교회, 주미전교회, 중부뉴저지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침례교회, 안아침침례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교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브라질 새사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성령의 도구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제43대 남가주교협 회장단 이취임 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제43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2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43대 남가주 교협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신임회장 진유철 목사가 이임회장 변영익 목사로부터 교협기를 이양받고 있다

이날 진유철 회장은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을 택해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다윗의 물뿔처럼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 드린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러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으로 비판적 입장에서 말하고 판단하는 자와 일하지 않으신다. 이만사회가 어렵고 힘들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국교를 떠난 우리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앞장서야 한다. 남가주를 향한 주님의 뜻이 된다.



하나인교회 창립 2주년 및 권사임직 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받은 권사들과 순서말은 목회자들이 케익을 자르고 있다

하나인교회 설립2주년 권사임직 감사예배

하나인교회(담임 김창근 목사) 설립 2주년 및 권사임직 감사예배가 2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본교회 주재형 집사의 찬양인도와 김창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이관우 집사가 기도를,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신앙의 네 동사로 부흥하는 교회’(유 1:20-2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다. 거룩한 믿음위에 나를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자, 예수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며 교회가 커나가는 비전을 갖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헤세드 중창팀과 하나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이어 권사임직식이 열려 이미숙, 최영자 씨가 권사로 임직됐다. 임직식은 서약, 안수기도, 선포로 이어졌으며 최요한 목사(예수제일교회 담임)가 권면, 임직패 수여 및 선물증정, 담례로 진행됐으며 최요한 목사가 축도를 했다.

이어서 헤세드 중창팀과 하나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다. 이어 권사임직식이 열려 이미숙, 최영자 씨가 권사로 임직됐다. 임직식은 서약, 안수기도, 선포로 이어졌으며 최요한 목사(예수제일교회 담임)가 권면, 임직패 수여 및 선물증정, 담례로 진행됐으며 최요한 목사가 축도를 했다.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에서 김삼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남가주동신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 강사 김삼환 목사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 살라”

남가주동신교회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가 1일과 2일 양일간 김삼환 목사(서울명성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거역하는 마약이나 동성결혼으로서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순병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주일 낮 3부 예배는 강신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김삼환 목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시37:4-6)는 주제로 설교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

나성순복음교회 실버드림대학(학장 진유철 목사) 가을학기 종강예배 및 학예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이날 학예회는 실버드림대학 가을학기에서 배운 것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졌는데 주기도문을 영어로 불렀으며, 서예교실 수강생들의 정성스럽게 그린 수묵화가 전시가 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각 작품들은 갤러리에서 전시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솜씨였다.

또한 영어회화 클래스 학생들이 영어대사로 구성된 드라마를 선보였으며, 건강체조반 학생들의 드림댄스, 노래교실 학생들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아리랑’을 불렀다. 한편 학예회가 있기 전 저녁 예배는 권오승 장로(실버드림대학 위원장)가 기도를, 진유철 목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요삼1:2)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아주사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가 주최하는 ‘아주사의 밤’이 17일(월) 오후 6시 본교 이스트캠퍼스에서 개최된다. ▲문의: (818)331-5478

한마음교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 목사)는 15일(토) 오후 7시에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562)412-8274.

제1회 남가주 여성 신학자/사역자 세미나

남가주지역 여성신학자들이 주축이 돼 개최하는 제 1회 남가주 여성신학자, 사역자세미나가 12월 17일(월) 오전 10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로는 조진성 박사(미주장신대교수), 김윤희 박사(글로벌유스 대표),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 최윤정 박사(미주장신대 교수) 등이 강의하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 ▲문의: (714)356-2886 socalseminar@gmail.com

제 7회 싱글 패밀리 बैंक

FMC와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한해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온 한부모들(Single Parents)과 자녀들을 위해 14일(금)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싱글 홈에서(1919 W. Cornet Ave. Anaheim) 제 7회 ‘싱글 패밀리 बैं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FMC 대표 써니송 교수와 FBM 주축로 남가주사랑의교회, 세레토스장로교회, 은노교회, 로뎀교회, LA 비전교회, 미주비전교회, 은혜교회 등 교회의 한부모들과 자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각종 경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714)514-6690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

굿네이버스(회장 데이비드 스트랜즈)가 주관하는 어바인 지역 중고교생들로 구성된 아이노스 앙상블(AINOS ENSEMBLE. 단장 최혜규)의 제 2회 과테말라 아동 돕기 자선연주회가 8일(토) 오후 5시 한민교회(담임 최상준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도 아이노스 앙상블이 후원하고 있는 과테말라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공연에서는 클래식, 영화음악, 교회음악, 크리스마스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949)422-5226(최혜규 단장)

한인가정상담소 자선음악회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여성, 아동센터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9일(주) 오후 7시 1st Congregational Church of Los Angeles(540 S. Commonwealth Ave)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445-1140, 503-5050

충현선교교회 태신자 전도집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4전5기의 챔피언 신화’의 주인공 홍수환 장로를 초청, 12월 8일(토) 저녁 7시30분과 9일(주) 오후 3시에 태신자 전도집회를 갖는다. 홍 장로는 ‘프로정신과 도전정신’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다’는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문의: (818)549-9191

선한정지기교회 선교사 위로의 밤

선한정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오는 10일(월) 오후 5시 선교사 위로의 밤을 개최한다. ▲문의: (818)522-3343 안기주 집사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게 돼 하나님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유철 목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실버드림대학을 열었다. 너무 열심히

세계로번거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반야말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천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kol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수-목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HolyLove-영예배) (KOC-한국어예배) 주일학교: 오전 1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웅선교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최태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토) 수요일예배: 오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영예배: 오전 11:00 3부 영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 박스 콜),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9:30 영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반야말: 1:30(토), 2:0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930-8800, Fax: (626)93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병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창, 청년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www.bethel.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604)584-5789,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예)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예)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9:00 영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토) Tel: (626)363-5887, Fax: (626)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예)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opc.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창, 청년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에비전장로교회 담임목사: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예배: 오전 10:00 중요찬양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 Tel: (714)891-2029 / Fax: (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주일학교: 오후 11:30 주일학교: 오후 5:30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예)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예)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민중찬양)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토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www.gracem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 오전 9:15, 11:45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www.inlandchurch.org Tel: (909)822-2324, Fax: (909)8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예)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예)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6-2948, Fax: (909)386-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천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년) 창, 청년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한국교회 이단 사이버 운동 비평’ 심포지엄 지상중계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 시한부 종말론 등 교회 안에서 활개 치는 이단·사이비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종교적 미혹을 경계하고 연합기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단 세력’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성경중심의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사연구소와 한국성경신학회, 신반포중앙교회는 26일 서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버 운동 비평’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경의 기준을 뛰어넘는 개인적 신앙체험, 종말론 주장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며 공교회의 교리를 훼손시키는 미혹행위라는 강경입장을 내놓았다.

◇성경을 넘어선 직통 계시의 문제점=발제자로 나선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에서 전개되는 신사도 운동 체험이 성경의 기록을 넘어 총독할 때 교회의 공적 신앙고백이나 신앙고리보다 앞설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신앙의 내용을 공교회가

해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단규정을 하는 만큼 교계 기관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함부로 이단문제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는 “이단 지정은 각 교단에서 이단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결정이 모아졌을 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밟은 이단 지정은 교계 연합기관이나 단체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큰 혼란만 야기시킨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역사적으로 활개를 쳤던 이단 세력 뒤에는 기존 교회 세력이 적잖은 도움을 줬다”면서 “휴거설을 주창하거나 동조하는 목

“신사도, 과도한 직통계시는 위험... 연합기관의 정치적 이단세탁 안돼”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통계시가 장로교 개혁신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신사도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계속된다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혼란을 막고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가르침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뮌스터대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신총회신학교 교수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봉(신반포중앙교회) 목사는 “신앙적

고백하는 신앙정신과 분리해 사적 내용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미혹행위”라고 못 박았다. 김 목사는 “객관적 신앙고백보다 신앙적 체험에 신앙기준을 두면 성경도, 교리도, 신학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되고 거짓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기관의 ‘이단 세탁’ 위험성 제기=특히 일부 연합기관이 회원 교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현상에 대

회자들은 대부분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로 교단과 교계 내 바른 정비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 구리상담소장도 “최근 교주가 회심했다고 해서 이단 세력이 한꺼번에 정통교회로 넘어오는 ‘교단세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구성원들의 분명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이단해제는 상당히 위험하며 위장 세력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자립 중소형 교회 60%... 탄탄한 내실 강점

한국교회 내에서 건강한 중형 교단으로 평가받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박현모 목사)의 강점은 탄탄한 교육시스템, 체계적인 선교지원시스템, 안정적인 은급관리,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 등에 있다. 또 미자립교회가 70~80%에 육박하는 타 교단과 달리 자립한 중소형 교회가 6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예장 합동과 통합 등 대 교단에 비해 교세는 5분의 1수준이지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총회 사업의 투명성 등을 바탕으로 교계 연합 사업에서 적잖은 무게감을 발휘하고 있다.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BCM(The Body of Christ Model)이다. 2009년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교사·학생·학부모 교육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500여개 교회에서 시행중이다. 교사들의 교육 목적을 돕기 위한 ‘교사 플래너’와 부모교육 교재 ‘부모에센스’ 등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사플래너와 연동되는 전용 홈페이지(ibcm.kr)도

서 납부하는 총회비 중 2분의 1가량이 연금에 투입돼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도 모범적이다. 교회진흥원에서는 3년 전부터 목회교정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에서 부흥을 이룬 거점교회가 지역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목회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를 전략적 개척 지역으로 지정하고 ‘성결교회확장 전략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디아스포라 교회와 교민, 선교사 등을 총망라해 지역 부흥을 위해 2050년까지 ‘500개 교회, 10만 성결인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단은 교단 내 업무조정과 타 교단과의 협조 등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기획홍보팀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강점에도 전·현직 총무와 총회본부 비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회기 불거진 총회본부 비리 사건 이후 조사처리전권위원회에서 전·현직 총무의 직무정지를 결의했고 총회는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교회수	2594	2635	2677
목회자수	6087	6097	6157
성도수	54만 5168	56만 7132	57만 1813

〈자료: 기성 총회〉

년 말 교회 수는 2635개였으며, 목회자는 6097명, 성도는 56만7132명이었다. 2009년 이후 교회수, 목회자수, 성도수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참조).

기성은 중소형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며 미자립교회가 40% 미만이기 때문에 타 교단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높은 편이다. 전국 교회에서 납부하는 총회비는 1년 경상비의 1.7~2.7%로 1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3%, 1억원 이상은 2.7%를 총회에 납부한다. 총회비가 면제되는 경상비 기준점은 1500만원으로 1000여개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전국 교회에서 올라오는 총회비만 해도 2012년 4월 기준으로 84억1864만원에 이른다. 총

기성, 2011년 2677개 교회 57만여 성도 '중형' 교단

개설해 동영상 및 그림자료 등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총회 교육국은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교사 플래너 활용세미나’를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교단은 105억원 가량의 선교기금을 운용하며 55개국에 39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6개월 과정의 선교사훈련원을 운영하면서 1후원(100만원), 2후원(50만원), 3후원(30만원)으로 나눠서 다수의 교회가 공동후원할 수 있는 투명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

은급제도의 경우 목회자는 의무적으로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회는 현재 360억원대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개 교회에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 목회자들은 신중한 법적 처리를 요청했지만 총회 지도부가 조사처리전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수록 혼란을 가중시켰다. 현재 우순태 총무는 조사처리전권위원회의 정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낸 상태며, 총무는 선교국장이 대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11년 12월 말 현재 국내 2677개 교회에 6157명의 목회자, 57만1813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까지 따지면 모두 6523개가 있으며, 82만7427명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010

회비와 기타 수입을 합하면 95억 4483만원이다. 이 수입으로 총회 회의비와 본부 운영비, 국내외 선교, 교역자공제회, 장학회, 서울신대 등을 지원한다.

기성의 강점은 조직력에 있다. 기성은 전국에 48개 지방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장로교의 노회와 같은 개념이다. 가장 많은 성도가 소속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1만1941명이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남지방회가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성도가 소속된 지방회는 제주지회로 2122명이다. 교회수로는 서울서지방회가 104개이며, 충서지방회가 103개, 서울중앙지방회가 101개로 뒤를 잇고 있다.

박근혜 · 문재인 대선후보 기독교 공약발표 한국 18대 대통령선거 20일 앞두고

18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기독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기독교 10대 현안에 대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공약 발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제안했던 기독교 10대 현안에 대해 양 후보 진영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진영 모두 공약발표회에서 “기독교가 우리사회 발전과 통합, 생명존중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근대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과 공직자의 종교활동 보장, 종교 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또,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전환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재 전 의원(박근혜 대통령후보 기독교대책 공동본부장은)은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들은 우리 사회 건전한 풍토를 유지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에서 전해준 차기 정부의 기독교 공공정책 과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문재인 대통령후보 종교특별위원장)은 “문 후보는 기독교계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국정운영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종교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양 후보 진영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받아들일면서도 박 후보 측은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표현

했다.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 측은 “종립학교의 종교 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달리 문재인 후보 측은 “일반 학교에 우선해 종립학교에 선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지는 것이 당 정책이다”며, “종립학교에서 교육반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각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이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종립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역사교과서 기독교관련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양 후보 모두 학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선에서 기독교 관련 공약이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처음이란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서 해외수출 2012년 사상 최고치 기록

올해 대한성서공회의 해외 성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보급부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성서공회는 올해 114개국에 203개 언어로 606만8252부의 성경을 제작, 수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545만6698부)에 비해 11.2%(61만1554부)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2326만 달러(252억원)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1973년 성서 수출을 시작한 이후 최고 실적이다.

그러나 올해 국내 성경 보급부수는 51만9225부로 전년 대비

40.1%(34만7248부) 감소했다. 성서공회는 “모바일 성경 확산에 따른 인쇄물 수요 감소, 찬송가 저작권 문제 미해결, 일반 출판사의 개혁안결판 성경 제작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성서공회는 올해보다 28만여부 많은 80만부를 내년 국내 보급 목표로 잡았다.

권인원 성서공회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118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자립과 성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1979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거듭

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성경·신약 보급부수 4200만부 중 17%를 대한성서공회에서 감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년 내에 성서 보급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등 세계 성서 제작센터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는 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서공회는 그동안 창립 연도(1895년)만 있었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조대 총무 권유어의 한국 입국일인 1895년 10월 18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기로 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대권도 겸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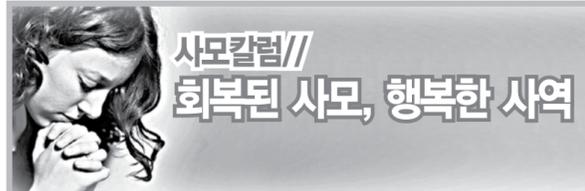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5. 사모의 비전가꾸기

사모의 가정 가꾸기는 그 어느 가꾸기보다 중요하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이 깨지면 교회의 붕괴는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목회자가정을 깨기 위해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목회자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 금이 가기 쉽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일년에 한번씩 CMF선교원에서는 선교사부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부부들을 섬기는 행사입니다. 행복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되지 않고 감정이 메말라 지쳐서 오시는 선교사부부들이 다시 회복되어 선교지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 날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다 알면서도 사랑할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진 부부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 생기를 얻어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놀랍습니다.

가정의 아내를 가리켜서 '안방의 해'라고 합니다. 아내가 활짝 웃으면 모든 식구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들의 사정을 보면 하루종일 웃을 형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쉽게 지치는 아내들에게는 웃게 해줄 남편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사역하는데 총집중을 하는 남편들에게도 돕는 배필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은 서로 기대하다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어맡기게 되죠. 이런 사악한 환경 속에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남편을 도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생리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세 가지만 잘 해드리면 된다고 하죠. 첫 번째로 음식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가 바

로 남편임을 잊지 마세요.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생리구조를 모르는 아내들은 "저의 남편은 왜 이렇게 음식을 밝히는지 모르겠어요"하며 속상해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러한 증세는 인격과 상관 없습니다. 배가 불러야 모든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우선 음식부터 장만하여 배가 부르도록 하는 것이 아내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방은 아내들만의 공간이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런 특권을 부여 받은 아내들이 때로는 귀찮아하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이 조리할 때 소질이 없는 아내들은 삼양탕(삼양탕면에 계란 풀어 만든 탕)만 끓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사역에 바쁘다보면 주방에 들어갈 시간이 넉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때로는 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만 주방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야 주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간성훈수로 병원신세를 지고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에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은 후부터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주방에서 모든 식구들을 건강을 책임지고 나가는 아내의 역할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주방으로 먼저 들어 갈 때마다 주부의 보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들은 잠을 잘 재워드려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할수록 수면에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하루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면 같은 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여기에까지 세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은 새벽기도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사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잠을 설치고 나면 하루종일 피곤하여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더욱 사모들의 경우엔 무거운 목회를 더욱 무겁게 하곤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생활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데 가장 특효약으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할 때 보다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모의 성생활은 다음호에 사모의 침실 가꾸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웃을 잘 입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복만을 다루는 의미가 아닙니다. 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무슨 웃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목회자

남편이 설교하다가 그만 죽을 수 계 될 때도 있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사모는 성격에 따라 증세와 반응이 달리 일어납니다. 성미 급한 사모들은 뒤에서 별떡 일어나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남편목사님들은 얼른 눈치 채고 걸음을 내리면 좋겠는데 죽을 쓰는 시간은 밤을 할 때보다 더 오래 걸리듯 죽을 췌는 목회자들은 밤을 뺨뺨 흘리게 됩니다. 설교시간은 훨씬 더 길어져서 교인들은 지루하여 한두 사람씩 졸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 목사님을 향하여 총알 같은 말이 나오게 되죠. "오늘 설교 죽은 것 같아 기나 하세요. 온 교인들 다 졸고 있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보고 하라고 해도 그만 큼은 하겠어요. 우리 목회 다 때려치우고 햄버거 가게나 차림시다." 이쯤 되면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을 나와 쥐구멍을 찾아보니 벌써 다른 목사들이 다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 빈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떠돌아다니는 남편의 심정을 사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땀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지혜로운 사모들은 바로 이때 "여보, 오늘은 속이 좋지 않은 성도가 왔는가 봅니다. 당신이 만드신

사탄이 금식기도하며 깨뜨리려는 목회자가정 사모의 격려 한마디, 건강 챙기기로 지켜야

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복장에 사모들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구상한 것이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돕는'이라는 뜻은 '에셀' '배필'의 의미는 '맞은편'이라는 뜻으로서 맞은편에서 즉 반대편에서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문화에는 '마누라'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주 누워라'의 준말입니다. 항상 남편과 마주 누워서 남편을 살피고 도와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도 다른지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호소해오는 사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들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게 하려고 남편들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직관력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아내들이 몇 가지를 더 읽어냅니다. 관찰력도 우수합니다. 느낌이 남편들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죽이 필요한가 봅니다. 죽도 죽 나롭이지요. 영양죽을 만드신다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아이 이 밥쯤 봐.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밥은 스위치만 켜면 되지만 죽은 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어야 하잖아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는 말에 다시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설교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언어에 능통합니다. 남편들에게 말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에게까지도 말을 다 하지 못하여 꼭꼭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의 모임이 필요하며 모여서 사모들끼리만 통하는 언어, 얼굴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석하게도 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없이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의 대상이 되니 얼마나 사모들의 스트레스가 클까요?

▲이메일: 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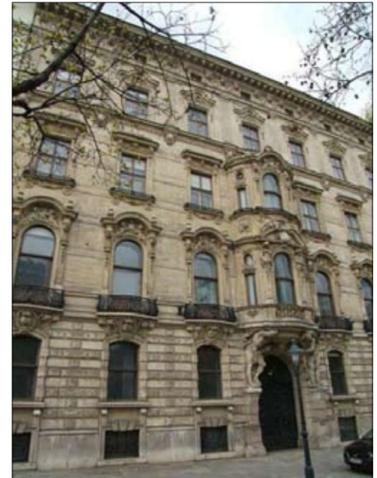
종교 문화 뉴스

시끄러운 지구촌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지구촌의 연말은 평안하지 않다. 종말에는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이 서로 싸운다고 성경은 예언했다. 구약에는 약 2천 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 1천번은 메시아 예언이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많지만 특히 이번 주는 에스겔 29장부터 32장을 소개한다. 바로의 나라 이집트는 다시금 새 헌법 개정으로 세속적 무슬림들과 무슬림 형제단이 결국 정면대결하고 말았다.

사우디 정부: 오스트리아에 종교대화센터 건립



지구촌의 분쟁지역을 소개하기 전에 사우디 왕이 오스트리아에 종교 대화센터를 건립한 소식을 전한다. 개원식에 참석한 반기문 총장이 '종교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미있는 축사를 했다. 종교박해가 가장 심각한 사우디 정부

가 지난 12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 종교대화센터를 열고, 반기문 총장 외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등 기독교와 무슬림 지도자들이 축하했다. 목적은 물론 종교간 평화를 이룩하려는 취지이나 자기 나라에서 종교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유럽에서 대화센터를 오픈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식 명칭은 The King Abdullah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Dialogue(KAICIID). 반 총장은 현재 국제분쟁에서 종교가 도리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계 분쟁 지역

UN의 팔레스타인 결정: 새로운 분쟁 불씨

(14면으로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라홍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해설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말세지말을 사는 성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고취시켜 준다.

1권 360원 13,000원 / 2권 394원 13,000원

철심 이레

사적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은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는데 바로 철심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철심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느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철심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제 19:11-21)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라 하여 여러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막연히 알고 현실 세계에 묶어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56면 8,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천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고의 알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진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풀이하며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1412면 14,000원

라홍채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
- 미국 테네시 석회회사 13년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베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제자교회 설립
-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 저서: 한국직업훈련본/아시아지역원유(석유)
- 조사연구평가자료/서해마다원유(석유) 조사연구/평가자료(제작됨)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 신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2012년 12월 4~5일(오전 10시부터~오후4시)
식사 및 음료 제공 / 회비 1인당 7만원(책 4권 교재 1권 파워포인트 포함)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백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
Email: andcny1@gmail.com
주최·신청: 쿤란출판사 (02-747-1004)

한국 세미나 일정 및 교육 시간표 (2012년 12월 4~5일)

제1일차 2012년 12월 4일		제2일차 2012년 12월 5일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구역 제1강	신약 제1강	철심 이레 제1강	계시록 제1강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후 1:00-2:30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구역 제2강	신약 제2강	철심 이레 제2강	계시록 제2강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오전 11:10-12:10	오후 2:40-4:10
점심시간	1일차 종료	점심시간	2일차 세미나 종료
12:10-1:00		12:10-1:00	

기독교문학소설

(남)기와는 다른 이야기 (5)



정중해 박사 (문학인)

김 장로부부는 미시시피 강 다리붕괴사고로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이 시기에 무명의 가족을...

이라크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죠. 매일같이 전쟁터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명은 자기가 제기한 문제점을 회피하고 자기들의 신앙적인 표현만 강조하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좀 못마땅했던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태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 신자들이 흔히 공중기도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난 그런 말이...

무명이 이 정도로 나오자 거기 같이 앉아있던 과 장로가 고개를 가우퐁거리더니 한마디 했다.

“허 선생님 보이소.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신지라. 항상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지요? 내가 비록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말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니까 내사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소? 하나님은 정말 이 어둔 세상에서 말입니다.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인도해주시는 거라예. 허 선생님, 지난번에는 심장병에 넘어져도 살아났지요? 이번에는 또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요? 그 보이소. 허 선생님이 아무리 위험한 길을 땀기도 곡살도록 인도해주시는 거라예.”

무명은 짓궂게도 또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왜 끝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죽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었던가요?”

김 장로가 무명의 어려운 질문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대답을 시도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지요? 또 전도서 기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어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시는 기한대로만 살다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다시 그 분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세 전에 예정해두신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말입니다.”

무명은 상대방이 말할 때 성경구절을 인용하면 자기는 거기에 대응할 만한 성경지식이 궁해서 별 할 말이 없었다. 그 대신 상대방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좀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무명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옳은 태도라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참사를 모면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다리에서 떨어져 살아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면, 그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나요?”

김 장로를 위시해 주위에 둘러앉은 교우들이 어안이 병병했는지 한동안 아무 반응 없이 무명의 얼굴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손 집사가 입을 열었다.

“허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루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다리붕괴와 같은 그런 대사가 차 나질 않았더라도, 우리 매일 위험한 길로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면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 장로도 열을 올려 거들었다. “손 집사님 말이 맞아요. 미국에서 매일 평균 차 사고로 자그마치 165명이나 죽는답니다. 그 숫자는 요즘 이라크에서 날마다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보면 미국의 길바닥이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종교 문화 뉴스 : 시끄러운 지구촌

(13면에서 계속)

먼저 지난 30일 유엔은 이스라엘,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준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분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바티칸과 같은 위치로 격상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계속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앞으로 주목받을 대륙으로 지난 주 타임지가 특집을 냈다. 8억5천6백만의 인구에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의 평균연령이 18세이며 엄청난 자원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그러나 시끄러운 나라가 너무 많다. 콩고 내전으로 반란군들이 일단 수도 고마를 철수한다는 뉴스이고, 말리의 서부지역은 이슬람 원리주의 집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으며, 앙골라는 내전의 연속이며, 소말리아는 해적국가로 악명이 이미 높고, 수단엔 남북으로 분리한 이후 자원문제와 종교문제로 내전이 계속 중이며, 이들 나라에서 내전으로 인한 이재민은 심각한 문제이다. 나이지리아는 계속 과격 무슬림들이 기독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케냐도 종교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다. 남아프리카는 노동자 문제로 시끄럽다.

중동

중동은 바람 잘 날이 없는 지역이다. 작년도 아랍의 봄은 봄바람이 아닌 겨울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카이로의 타히르 광장은 다시 반정부 데모대가 점령하고 있고, 카이로 대학은 모orsi 대통령 지지자들이 데모, 신정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다만 리비아는 좀 잘 나간다고 보도한다. 예멘은 반정부 데모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왕정 반대가 심각하고, 요르단 역시 불안한 현실. 이라크는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테러로 살인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시리아 내전은 언제 끝날지? 러시아 여기자와 인터뷰하는 알 아사드의 모습은 너무 여유만만하다.

이집트: 신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이집트의 사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모하메드 모orsi 이집트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는 등 그가 '새로운 파라오' 등극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아세르 알리 이집트 대통령 궁 대변인은 "대통령은 혁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결정이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



통령이 구 체제를 타파하고 사회부패를 척결할 목적으로 발표하는 법령이나 헌법 선언문은 최명적이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경제 그리고 법치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처사라고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

고 있다.

또한, 모orsi 대통령의 헌법초안위원회 100명은 이슬람 사리아에 기초한 헌법초안을 마쳤다. 여기에 세속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채택되고 말았다. 12명의 반대자들은 헌법위원회를 탈퇴했다. 여기에 민주화 세력들(세속주의자, 자유주의자들),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은 민주화가 무슬림형제단에게 납치당했다고 완강하게 대고 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30일부터 지지자들은 카이로 대학에서 지지데모를 해 이집트가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타협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미 서방의 이슬람 전문가들은 무슬림 형제단들을 민주화를 이용, 선거를 해 정권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라는 사다리는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 동경대학 이슬람 전문가 야마우찌 마사유키(山内昌之)는 저서 "중동: 신질서의 형성"에서 민주화 세력들에게 경고했다. 민주화 세력들이 무슬림 형제단들의 세력화를 막지 못하면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처럼 아랍의 봄은 납치당하고 말 것이라고. 현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들은 이집트를 신정주의(theocracy)로 하려고 하며 민주화 세력들은 세속적 민주주의적 이슬람 국가를 주장한다. 야마우찌는 또 부안하기를 이집트의 미래가 중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이집트의 미래가 불안하다.

수년전 기독교 신자 이집트 청년의 안내로 파라미드를 관광했다. 역사학과를 졸업한 그의 첫 마디가 "교수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를 읽어보셨습니까?" 필자가 당황해하자 이집트는 그 성경 예언대로 됐다고 말했다. 콥틱 기독교 국가였던 원래 이집트인들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다. 마호메트 이후 이 나라를 집착한 아랍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이들의 앞날이 걱정된다.

아시아



아시아에서 좀 시끄러운 나라, 인도네시아의 과격 무슬림들은 기독교회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아하마드는 이슬람교로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으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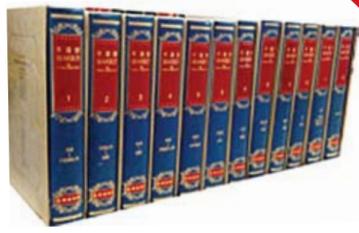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종교인권 문제에 침묵한다고 국제적으로 좀 비난을 받고 있다. (16면으로 계속)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세일가 \$150.00+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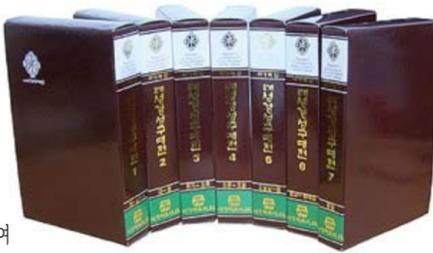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납사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대결 7권:판말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해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다이어리 커버에 교회이름 인쇄, 수첩 안에는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커버에 100부 이상은 무료로 인쇄해 드립니다(단 10월 31일까지 주문에 한함). 50부 이상 100부 미만은 인쇄비 권당 50센트씩 추가됩니다.



미주판 2013 Immanuel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쿠틀을 결합 임마누엘 미주판 2013다이어리!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Agape Partner Diary 미주판 고급스런 표지와 세련된 디자인,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Contents! 교사용, 구역장용, 성가대용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Gift 아이템입니다. 1-50권은 \$650 51-99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2013 하이움 다이어리 30년 동안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의 친구한 사역 도우미! 미주생활 안내가 기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1-5-권은 \$6,25 51-99 권은 \$5,75 100권 이상은 \$5,25



미주판 2013 Qurman Christian Diary (Medium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5,50 51-99 권은 \$5,00 100권 이상은 \$4,50



미주판 2013 Qumran Christian Diary (Large Size)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Contents로 구성된 미주판 다이어리! 목회자분과 구역장, 교사분 들을 위한 실속 있는 구성! 1-50 권은 \$6,50 51-99 권은 \$6,00 100권 이상은 \$5,5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2013 2013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이어리 Experiencing GOD diary! 목회자, 제직, 교사, 성가대, 구역장의 사역필수품! 1-50 권은 \$6,95 51-99 권은 \$6,55 100권 이상은 \$6,00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 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24)



3. 예배중심의 교육-성인예배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의 교육(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한인들을 성심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체득적으로 실행해온 것이며 동시에, 보다 통전적인 기독교 교육을 일구어가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지난 주를 거쳐 예배 중심의 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인 “교화(edification)”, “형성(formation)”, 그리고 “양육(nurture)”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배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방법들인 “설교(Predach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sic)”, 그리고 “성례(Sacrament)—세례식과 성만찬(Baptism and Eucharist)”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역할들 및 방법들이 우리 한인 교회의 어른들과 자녀들의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져왔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한인 어른들의 예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이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들은 사실 성심으로 준비되고, 충심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신앙전통대로 의식적인 요소들이 분명하고 또 미국교회들의 예배들에

즉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가 가지는 교육적 중요성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던 대표기도를 준비하던 찬양을 준비하던 혹은 성만찬이나 세례식을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배자들을 교화하고, 신앙을 형성시키고, 영적으로 양육시키며,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뚜렷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충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야만 그리고 알고 진행해야만 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더욱 강화할 지, 또한 무엇을 더욱 보완할 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에게 예배가 가지는 그 교육적 의미를 확실히 자각해야 비로소 그에 걸 맞는 의지적인 교육적 노력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사역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더욱 의미 깊은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인 어른 예배자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Active participation)”가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예배를 통한 기독교 교육은 본질적으로 예배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

“교역자의 예배 통한 의도적 교육적 노력 예배자의 적극 능동적 자세 독려 필요”

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영적인 뜨거움이 살아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우리 한인 예배자들의 한 주간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체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망하는, 매우 의미 깊은, 그래서 더욱 소중한 시간이지요. 깊은 영적인 충만함을 담보하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친 이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리놓고, 상처를 치유 받고, 새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 가슴으로 받아 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설교, 기도, 찬양 및 예배 음악들, 그리고 성례 등을 통해 그들을 위한 교화, 형성, 그리고 양육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뚜렷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우리 한인 어른들은 그들의 바쁜 현실의 삶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나는 신앙교육의 현상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기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뚜렷한 교육의 모습들과 그에 따른 성과까지 기대 불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개 교회들의 특수한 형편들과 사정들을 제외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사역자들의 “예배를 통한 의도적 교육적 노력들(Intentional educational efforts through worship)”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던 때문입니다. 이는

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역자들이 의도적인 교육적 노력을 실시한다 해도 예배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 않으면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인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그 예배에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우리 예배자들 스스로 예배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새로워지겠다는 각오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들을 온전히 받아 안겠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부터가 예배를 통한 교육의 출발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한인 어른 예배자들이 예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함으로써 그 교육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래는 그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이 더욱 공고히 되어 스스로를 기독교인들로서 참으로 자각하며,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가 현실의 삶에서 더욱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즈음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통한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위대한 기도(막14:32-42)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상치될 때 그분은 숨기지 않고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인류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유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는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위대한 기도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화 하나님의 주권(막14:43-52)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롯 유다가 인솔하여 데리고 온 무리에게 잡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늘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으므로 주님은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은 물론

세속 역사까지도 그분의 지배아래 있으며, 그분의 지에 따라 진행되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나라나 개인의 흥망성쇠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스스로 낮추고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 가면을 벗고(막14:53-65)

65절에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정죄한 후 그들은 예수께 침 뱉고, 주먹으로 쳤고, 심지어 하수들까지 그분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며 품위를 자랑하던 유대종교지도자들이 마치 분골이라도 하듯 스스로 품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참 모습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면을 써서 진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

얼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온갖 탐욕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을 말함으로 마치 자신을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겉과 속이 다 똑같은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 제자가 되는 길(막14:66-72)

71절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앞의 두 번의 행동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가 높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무엇보다도 나를 부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좇을 수가 없습니다. 바

울이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한 자기부인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2:20).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자아를 버리고 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 침묵해야 할 때(막15:1-15)

5절, 빌라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변명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른지 가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죄가 없으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소를 당하셨고 심문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입니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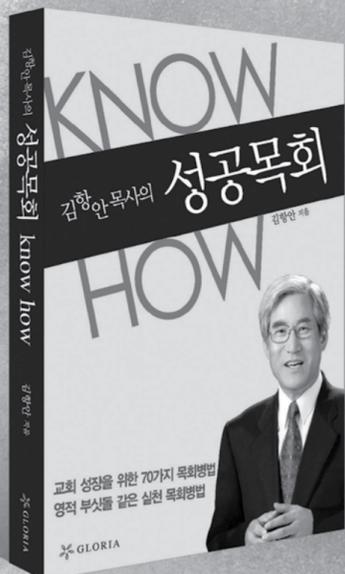
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면 묵묵히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을 뒤집고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막15:16-22)

18절, 총독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군병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란 인사말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것도 일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군병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며 진심으로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 외모로만 보았으므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심을 발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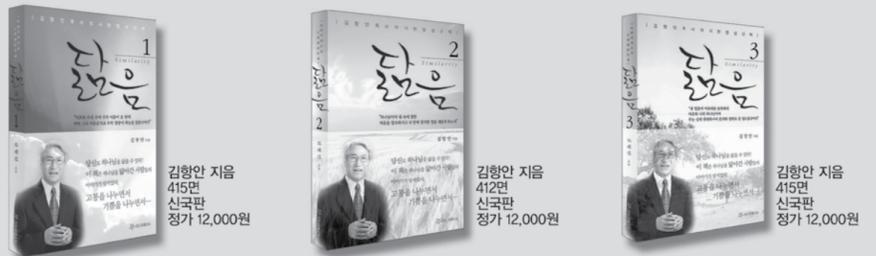
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비록 열심히 산다 해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김향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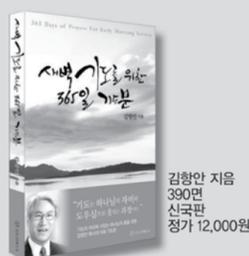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식들과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김향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김향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토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향안 목사
철학박사, 선교학박사

목포 교육대학, 가톨릭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연변 대학, 배를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총회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감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과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은사와 교회성장」, 「대표기도랜드북」,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헌금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랑교육법」, 「담음」, 「1997~2012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새벽기도를 위한 365일 기도문」 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인/터/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

“한국장로교, 분열 이전으로 돌아가야”

지난 2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와 인터뷰를 통해 한장총의 역할과 비전을 향한 권태진 목사의 2013년 계획을 들어보았다. 권태진 목사는 예정 합선 제96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한장총 상임회장을 역임했다.



권태진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대표회장으로 수종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거룩성과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진리를 세우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열의 악순환을 벗어나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별력과 신앙의 절개가 필요한 해, 국가와 교계의 중요한 시점에 세워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계의 연합과 일치, 섬김과 나눔을 위해 온유와 겸손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와 신앙고백, 정치, 권징의 장로교 헌법을 제정하여 하나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헌법과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방제 형태로 한 장로교회, 분열 전의 상태로 돌아와 신앙고백, 정치, 권징의 장로교 헌법을 제정하여 하나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헌법과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방제 형태로 한 장로교회, 분열 전의 상태로 돌아와

치에 맡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미혹하는 간교한 이단세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앞장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1978년 천막으로 개척 후 35년 간 보호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맡겨 주신 신령한 가족들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실천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한 예배당을 통하여 지역 사회 속에서 문화와 복음으로 교회의 역할을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 양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명예로운 퇴임을 위해 사육과 사임을 버리고 기도도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목회와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김과 나눔,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곡된 역사관 바로 세우고 바른 교회관, 바른 기독교관 갖도록 역사박물관 통한 역사정리, 장로교 바른 신학과 좋은 제도 표명

“한장총이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912년에 조직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족 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장로교회는 병원과 학교 설립, 국민 계몽운동 등에 힘썼고 이로 인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근대사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회들은 비록 교단이 갈라져 있으나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 확인과 의식이 지금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장로교회들은 비록 교단이 갈라져 있으나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 확인과 의식이 지금의 결속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사회적으로 단합하고 공공의 적은 복음을 중심으로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별들의 전쟁이 있는 곳에서 하늘과 같이 모두를 품는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장로교회의 통합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한국장로교회의 바른 신학과 좋은 제도가 잘 나타나도록, 한국장로교 300개 교회 선정과 역사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정리하고, 신학연구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맡은 교육·선교·봉사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즉, 장로교회의 일치와 교계의 하나됨, 남남연합과 남북통일을 복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교사역으로 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교계의 현실과 한국기독교의

회복지를 시작하여 정착시켰고 문명 퇴치, 우상 타파, 의료, 교육, 애국독립운동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장로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명분 없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사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세속문화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영적, 문화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왔지만 민족과 국가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더불어 전문적인 복지 사역을 통하여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의 복지와 구호 활동에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힘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장로교회의 본질 회복과 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선행의 역사가 많이 때물되어 있습니다. 자유와 경제성장의 주역들이 역사 속에 묻히고, 그릇된 역사관이 심겨져 교묘하게 퍼지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인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바른 교회관과 바른 기독교관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국가, 교회적으로 중요한 2013년에 한국장로교 총회 대표회장의 중임을 맡겨 주셨는데 바쁜 일 보다 중요한 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종교 문화 뉴스 : 시끄러운 지구촌

(14면에서 계속)

미얀마는 친미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문제는 더욱 억압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국제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인도는 종교문제로 항상 시끄러운 나라다. 과격 힌두교의 기독교 공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스리랑카 역시 힌두교의 타밀인들과 불교의 싱할리인들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갈수록 기독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삼중(喪中)”이다. 왕궁 앞의 큰 운동장에 아직 빈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조화를 헌화한다. 10월 초 시하누크 국왕이 죽은 후 중국인 사장의 옷 공장에서 한



여공원이 국왕사진을 놓고 울었다. 화가 난 중국인 감독이 사진을 찢어버리면서 일하고 소리쳤다. 그 여공은 사진 찢는 것을 공무원에 고발하자 중국인 간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캄보디아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고 시하누크 국왕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교적으로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 캄보디아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어린이 학생, 대학생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은 너무 미약하다. 이 나라 대학생들은 학업을 마쳐도 훈센 수상이 와서 졸업장을 주지 않으면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대신 학업성적표가 졸업장으로 쓰여진다. 졸업장 받는 것은 사립대학 경우 3년 후가 된다고.

“Gospel for Asia”(GFA, 11월 7일자)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지난 10년간 종교 핍박이 400% 증가했다고 한다.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은 인도 교회라고 한다. 박해국가들은 주로 공산주의국가, 다음은 중동이다. 인도네시아는 종교박해국가나 기독교만 박해받는 것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아파가 다수인 하자라 사람들은 수니 무슬림들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유럽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 밖이지만 프랑스는 동성애 문제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심각하다. 사회주의자 대통령 홀랜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보수주의자들, 유대인들, 무슬림 및 기독교가 들고 일어났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등의 일부 구라파 나라의 경제위기는 이념의 위기다. 과도한 복지주의가 나라를 부도도 몰수 있다. 변함없이 근면, 절제, 생산을 중시하는 독일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진보주의자들은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도덕적으로는 규범과 전통을 무시하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주의이다.

(이슬람네트워크)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12월 미주갈멜산기도원정기 기도성회

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저녁) ~ 20일(목, 저녁)(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818) 306-4912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머리가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